

외솔 최현배 선생 서거 50돌
외솔회 창립 50돌
기림 강연회 자료집

□ 드리는 말씀

올해는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50돌, '외솔회'가 창립된 지도 50돌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외솔회'는 지난 3월 23일에 외솔을 기리는 강연회를 기획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나온, 외솔이 지으신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쉽게 풀이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외솔이 남기신 저술과 지난 해에 나온 <문학·논술·논문 전집>을 중심으로 하여, “외솔 선생의 학문세계”, “외솔이 풀이한 ‘삶’의 바탕과 짜임”, “외솔의 문학”을 다루기로 하여,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집필을 부탁 드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모임이 쉽지 않아서, 차일피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이 예측되므로, 그냥 논문집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그 아쉬움을 채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르는 불편함이나, 모자람이 있으시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헤아리시고, 다만 외솔 선생님이 후진들에게 남기신, '나라사랑·겨레사랑'의 정신과 깊고 넓은 학문 및 철학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0. 6.

외솔회 회장 성 낙 수 드림

목 차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풀이의 내용과 의의 /성낙수

1. 들어가는 말	9
2.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내용	10
3. 풀이의 의의 및 맺음	17




최현배 선생의 학문 세계 /권재일

1. 머리말	23
2. 국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	24
3. “우리 말본”과 외솔 선생의 언어학 연구	25
4. “한글갈”과 외솔 선생의 훈민정음과 문헌 연구	35
5. 맺음말 — 외솔 선생 학문의 올바른 계승을 위하여	38

 외솔이 풀이한 ‘삶’의 바탕과 짜임 /박영신

1. 돌아봄	43
2. 삶의 물음	45
3. 삶의 힘	48
4. 삶의 뜻	52
5. 풀어봄	56

 외솔의 문학 /정현기

I. 머리말	65
II. 외솔 최현배의 시대	69
III. 한글과 독립정신	76
V. 맺는 말	80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풀이의 내용과 의의



성낙수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풀이의 내용과 의의

성낙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외솔이 1926년에 일본에서 10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나랑현 산변군 한적한 농촌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우리 겨레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집필하여,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며, 1930년에 단행본¹⁾으로 나왔고, 1962에 다시 중간²⁾하였다.

이 글은 당시에 사회 각층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 제국에서는 이 글이 조선 민족의 약점을 잘 드러낸 것으로 알고, 감옥이나 학교에서 읽기를 종용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겨레에게 과거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알고, 이른바 ‘조선어사건’ 때 외솔의 애국정신을 증명하는 데 유력한 증거물로 가져갔으며, 급기야는 모두 불태워졌으나, 다행히 동아일보에 남아있었고, 1930년도판이 발견되어, 그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외솔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대한 논문을 집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조감하고, 그 의의를 간략히 기술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1) 1926년 9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66회에 걸쳐 연재된 것을 ‘동광당서점’에서 1930년에 초판을 내었다.

2) 1962년에 ‘정음사’에서 번각본을 발간하였고, 1987년에 중판을 내었으며, 이들은 다시 2012년에 ‘외솔회’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외솔 최현배 전집〉으로 영인하여 발간하였다.

2.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내용

이 책은 제일장에서 ‘민족적 질병의 진찰’을 하였고, 제이장에서 ‘민족적 쇠약증의 원인’, 제삼장에서 ‘민족적 갱생의 원리’, 제사장에서 ‘민족적 갱생의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1. 제일장

이 논문의 제일장에서 ‘민족적 질병의 진찰’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의지의 박약³⁾함’을 들었다. 즉 우리 조선의 문화가 여러 가지로 퇴폐하였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겨레의 삶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용기의 없음’을 들었다. 즉 우리 겨레가 분투성이 없으며, 모험심이 없으며, 반항심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활동력의 결핍⁴⁾함’을 들었다. 신경 쇠약자는 항상 칩거하여, 되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집밖에 나가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런 기질이 우리 겨레에게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의뢰심이 많음’을 들었다. 이웃이나, 친척이나, 권력이나, 외세에 대한 의뢰를 말하는 것으로, 외술은 당시에도 남을 의뢰하려는 성향이 남아 있는데, 이는 생존의 대법이 자기 활동, 자기 의뢰에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저축심의 부족’을 들었다. 저축이란 자기의 노력으로써 현재를 살아나고, 더욱 장래의 생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여력·여재를 저축하여 두는 것인데, 우리 겨레는 이 저축심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성질의 음울⁵⁾함’을 들었다. 우리 겨레는 성질이 음울하여, 쾌활하지 못하며, 전래의 희망에 약희⁶⁾치 아니하고, 과거의 회억⁷⁾에 침통을 맛본다고 한다. 생활

3) 박약(薄弱): 의지나 체력 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림.

4) 결핍(缺乏):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

5) 음울(陰鬱): 어둡고 답답하며 무거운 느낌이 있음.

6) 약희(躍喜): 가슴이 뛰는 기쁨.

7) 회억(回憶):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은 전진인데,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은 진취적이 아니오, 회억적이어서, 미래를 내다 보고, 전진하는 기질이 약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신념의 부적함’을 들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자신이 적으며, 더구나 남을 믿지 못하고, 항상 의아하며, 시기하며, 음해하는 기질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가증할 사실의 역사를 가진 것은 지울 수 없으며, 당파 쟁투에 꽃이 떨어질 때가 없고, 민족적으로 일치 단결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여덟째, ‘자존심의 부족함’을 들었다. 특히 문호를 개방하여, 외인의 내침을 당한 뒤로 더구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권병⁸⁾인 정치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뒤로는 우리 조선 사람의 자존심이 거의 파산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아홉째, ‘도덕심의 타락’을 들었다. 살려고 하는 힘이 강렬한 사람,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남과 함께 사람답게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은 근본적 규범이며, 도덕은 인류 사회의 진정한 생활 의지의 발로인데, 우리 겨레에게 그것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조선말의 ‘국채보상운동⁹⁾’이 나, 당시 일부 지방에서 횡행했던 마약 유행¹⁰⁾의 예를 들었다.

열째, ‘정치 경제적 파멸’로 그 당시에 정치라는 인간 최요의 권병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경제라는 인간 생활의 기초가 깨어졌다고 하였다. 언어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 주거가 뜻 같지 못하다고도 보았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통의 신음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참한 인상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외술은 우리 겨레의 약점과 단점을 들었지만, 모든 겨레가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는 이런 현상이 치유되어, 민족적 중흥을 이룰 것을 염원하였고, 1945년에 드디어 광복이 되어,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었음을 중간본에 추기로 적어 두었다.¹¹⁾

8) 권병(權病): 일을 면하려고 부리는 꾀병.

9) 1907년(융희 1) 2월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운동(主權守護運動).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전국적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거금이 모자랐으나, 일부 모리배들이 착복하고 횡령하였다고 한다.

10) 일부 특수 지역에서 아편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11) “뒤적음: 나는 드디어 겨레와 함께 사경에 빠졌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이 소신과 소망과 예언을 실현하여, 겨레와 더불어 갱생의 봄을 맞았다. 깊은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는 바이다. 1962. 3. 20. 적음.)”

2.2. 제이장

제이장에서는 ‘민족적 쇠약증의 원인’을 세밀히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이조 오백 년 간의 악정’을 들었다. 우리 겨레가 원래 쇠약한 것이 아닌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문을 숭상하고, 무를 억압하여, 천하의 인재를 일망¹²⁾에 몰아가, 문관이란 존재만 귀하고 여기고, 무관들은 등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모두 선비(士)가 되고, 이른바 양반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무인이 되어서, 국가의 간성¹³⁾이 되기는 바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문약해지고, 경제가 피폐하게 되었다.

둘째, ‘사상 자유의 속박’을 들었다. 조선 오백 년 간은 실로 중국 유교 사상의 전횡, 전성의 시대이다. 공맹의 도로써 치국의 대법을 삼아, 이로써 민심의 통일을 계하며, 이로써 자가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것이 치자 계급의 정강이었다. 그러므로 유교 이외의 사상에 대하여는 절대적 전권을 가지고 엄금하였고, 그로써 다양한 사상이나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은 그로 인하여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셋째, ‘자각 없는 교육’을 말하였다. 중국의 경서를 주로 배워, 중국의 역사나 철학은 가장 흥미를 가지면서, 정작 자기의 소속인 조선 민족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며, 단군이 누구이며,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당송의 시문은 입이 닳도록 외우지마는, 조선 문장가의 시문은 하나도 관지할 바가 아니었다. 자아의 발견을 못한 사람이 자아 생활의 발달에 대하여, 하등의 용력과 비정이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한자의 해독’을 들었다. 한자를 배우고 그 시간과 정력을 소모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 글로 말미암아서 할 일, 볼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고로, 차대에게 전할 만한 공적과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만 “밀린 일”이란 채무나 전할 따름이었다. 이 채무가 대대로 적체누전한 결과, 이십세기 초두의 우리 조선 민족은, 필경 그 채무로 인하여, 파산하고 말았다. 한자의 학습에 의한 해독의 중함이 비할 수 없으며, 한자는 우리에게 정히 망국적 문자이었다고 보았다.¹⁴⁾

12) 일망(一網): 하나의 그물. 한 번의 그물질.

13) 간성(干城): 방패와 성곽.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14) 이 견해는 외솔에게 평생의 기쁨이 된 듯하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외솔은 10대에 이미 ‘사서삼경’을 비롯한 한학 공부에 몰두하여, 일가견을 가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에 신학문을 습득하면서, 한학공부의 시간적·정력적·경제적 낭비를 체감하였고, 한자의 어려움과 난해함을 체득한

다섯째, ‘양반 계급의 횡포’를 말하였다. 양반의 방종 부류가 각처 향촌에 생기니, 이른바 토호·토반이 이것이다. 양반은 대권을 병하여 대도를 행하고, 토반은 소권을 집하여 소도를 자하니, 그 간에 못 살 이는 다만 통상 인민이다. 이를 상민이라 부르나니, 상민은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하며, 수족이 있으되 자유로 부리지 못하니, 그의 인권은 전연히 유린되며, 그의 이익은 온통 강탈되었다고 하였다.

여섯째, ‘번문 육례의 누전’을 들었다. 이 말은, ‘허례·허식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의의 오락줄에 묶임’이라는 뜻이다. 우리 조선 민족의 원기가 쇠퇴함을 따라, 온갖 못 예절이 우리의 생활을 구속함이 우심하여, 이른바 양반 자제의 행동이란 참 용이사가 아니었다. 모든 행동이 다 고정된 형식에 부합하기를 요구한다. 인간대사인 관혼상제에 관한 모든 동작은 일정한 형식에 맞아야 한다. 이에 매이다가, 번잡한 예문은 생기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곱째, ‘불합리·불경제의 일상생활 방식’을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 방식은 심히 불합리·불경제의 것이 많아서, 민족적 활동을 저지함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주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경제적·비위생적·비현대적인 단점을 지적하였다.

여덟째, ‘조혼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우리 조선의 구래의 사상이 자녀를 부모의 부속품, 소유물, 완구같이 생각하여, 자녀에게는 일개 독립적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부모된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였다. 조혼의 폐도 실로 이 근본 사상에서 생긴 일 지엽의 현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불합리한 이유를 다방면으로 기술하였다.

아홉째, ‘나이 자랑하기’를 들었다. 즉 젊지 아니하고 늙은이 측에 드는 것을 큰 영예로 알며,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다운 기운이 없고 기력이 다 쇠해 빠진 늙은이 모양으로 점잖다 하여 칭찬하는데, 이것이 더도 말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의 생기가 쇠약한 원인이 되는 동시에, 또 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미신의 성행’을 지적하였다. 이 미신의 뇌옥¹⁵⁾이 우리 민족에게 준 악영향을 관찰하건대, 하나는, 과학 정신의 위축이요, 또 하나는 자력주의의 절멸이라고 하였다. 이 미신이란 것은 완고한 선입견과 과속한 독단 그것으로써 만물을 관찰하며, 만사를 해독하는 것인 바 이러한 미신이 압도적 세력을 휘하던 우리 민족 생활에서

결과였다. 그리하여 그가 평생을 우리말과 글의 수호와 같고 닭음에 매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뇌옥(牢獄): 감옥.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과학적 정신이 위축됨이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다.

2.3. 제삼장

제삼장에서는 ‘민족적 갱생의 원리’를 논하였다. 이를 상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적 생기를 진작하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적 쇠약성은 마음으로 난 병인 즉, 마음으로 낫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겨레가 이 병에 걸려있음을 번연히 자각하고, 절연히 침체된 생기를 진작하며, 위미한 의기를 분려하여서, 우리 민족의 장래에, 광명과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경륜과 모든 활동에 용왕 매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민족적 이상을 수립하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생이란 부단의 전진인데, 이상은 이 부단적 전진을 인도하는 성광¹⁶⁾이므로, 생명의 내적 충동이 왕성한 곳에는 반드시 이상의 인도적 등화가 휘황하며, 이와 반대로, 그 생명의 전진적 충동이 위미¹⁷⁾한 곳에는 반드시 이상의 인도적 등화가 또한 경멸하는 것이니, 민족적 이상을 수립하여야만, 나라에 광명이 올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우리 민족의 시대적 이상을 파악하라’고 말하였다. 이미 앞에서 세운 항구 불변의 최고 이상 아래서 다시 때를 따라 추이하는 시대적 이상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금후 일정한 시일에 금강산 유람을 못한다 하더라도, 금일의 할 일과 명일의 할 일을 착착히 진행하여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족적 최고 이상을 실현함에도 또한 시대의 진운과 사회의 형편을 따라, 그때 그때의 급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 만약 이 시대적 이상을 잡고서, 시대적 급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이른바 민족적 최고 이상이란 것도 필경엔 떨어지고 말아서, 언제까지라도 일 보의 접근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조선 민족의 특질’을 말하였다. 이를 ‘의적 방면, 정적 방면, 지적 방면’으로 살펴, 우리 조선 민족의 정신의 위대함과 특질의 탁월함을 고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풍부한 역사적, 실제적 증거를 들어, 우리 민족의 특질이 결코 어느 다른 민족보다 열악하다든지 하는 망념과 기우는 일소되기를 바랐다. 상세히 말해 온 논리

16) 성광(星光): 별빛.

17) 위미(萎靡): 시들고 느른해짐.

가 조금도 허구 가설이 아니요, 모두가 철석같은 역사적 실적인 즉, 이상의 고증이 결코 망자존대¹⁸⁾의 과장이거나 부허맹랑¹⁹⁾의 공담이 아님도 명백한 일이며, 그 대부분이 이미 세계 학계의 공인과 경이와 탄상을 얻었으며, 또 얻어가는 중에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민족적 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족적 갱생에 대한 열렬한 노력과 장쾌한 분투가 필요한데, 여하히 귀중한 원리라도 이를 실행하는 노력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원리는 다만 공리와 허담에 지나지 못하여, 실제적 효과는 조금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민족적 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심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날 진리의 길도 결코 그의 신비한 이치나 기이한 방책이 아닌 것도 정한 것이다. 다만 신기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남의 힘껏 하는 절규를 등업 불고한다 하면, 그에게는 도무지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할지,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아니 나올 지경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일어날 듯한 비평에 대하여’라 하여, 자평을 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관점²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진리의 길도 결코 그의 신비한 이치나 기이한 방책이 아니라고 하며, 우리가 오늘의 참경을 초치한 것이 무슨 기이한 도술을 행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파하였다.

2.4. 제사장

제사장에서는 ‘민족적 갱생의 노력’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교육의 정신’을 말하였다. 신교육은 피교육자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그 근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천부의 성능을 자유로 충분히 발달하게 하며, 자기의 살음을 붙인 민족·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강렬한

18) 망자존대(妄自尊大): 분별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하는 것을 이르는 말. ‘도리에 어긋나게 스스로를 높이고 크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함부로 자신만 잘난 체하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는 세상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뽐낸다는 ‘유아독존(唯我獨尊)’과 자기 분수를 모르고 위세부린다는 ‘야랑자대(夜郎自大)’ 등이 있다.

19) 부허맹랑(浮虛孟浪): 마음이 들떠 있어 미덥지 못하고,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함.

20) 이 때에 이미 많은 이들이 신봉하던 사회주의를 외설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즉 유물론적 관점을 취하는 그들이 유심론적인 관점에 대하여 비판할 것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였다.

의지를 고취하며, 다시 나아가 세계 전인류의 합리적 생활과 공존 공영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넓은 국량을 기르며, 자기의 인격이라는 것에 절대적 존엄을 지키어서, 그 인격을 수단화하며, 그 인격의 존엄을 헐버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계몽운동'에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겨레가 깨어나려면, 보통 교육 기관의 보급과 완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민족의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령 아동을 수용할 만한 수의 초등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²¹⁾ 그리고 뜻있는 이는 마땅히 농촌으로 돌아가야, 잠잠한 가운데에 가장 진실하고 온건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체육 장려'를 주장하였다. 체육을 장려는 갱생하려는 우리 민족의 금석같은 표어라고 보았다. "어리거나 젊거나 늙거나 다 함께 체육을 장려하라.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늙은이는 늙은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리하여, 다 같이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자." 그러하면 이 건강한 신체에서 생기가 샘솟아 나서, 모든 장애를 능히 배격하고 갱생의 춘소식을 맞을 만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도덕의 경장'을 들었다. 민족으로의 존엄과 권위를 향인격의 절대 가치를 인식함에서 출발하여, 도덕적 자유를 목숨같이 사랑하며, 인격적 평등을 밥보다도 좋아하며, 인류 박애를 사리처럼 힘쓰면서,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정대한 심조로써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자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무상의 의무를 삼는 동시에, 또 심절한 만족을 느끼며, 무한한 의의를 체득함에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경제의 진흥'을 말하였다. 즉 경제 생활은 인간 생활의 기초적 방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풍유와 만족을 얻은 뒤에라야, 다른 모든 고귀한 인생 가치가 향상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1920년대)과 같은 파멸에 빈한 경제적 상태에서 오히려 갱생을 도하고자 하는 우리 조선 민족으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비용할 바는, 이 빈궁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만 벗어나서, 물질적 풍유를 이루어 낼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섯째, '생활 방식의 개선'을 들었다. 의·식·주 세 가지의 개량에 관하여, 상세하게 개선의 방안을 가술하였다.

일곱째, '민족 고유 문화의 발양'을 주장하였다. 갱생의 노력으로, 전대 선민의 문

21) 이는 1920년의 실정을 말하는 것으로 광복 후에 그의 이 생각은 모두 실현되었다.

화적 유업을 연구하여, 그 창인을 연마하며, 그 유광을 천명하여, 그럼으로써 민족 생활의 실제에 그 옴쳤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고 애육하여 그 진가를 발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우리 말과 글의 연구·애육·선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논하였다.

3. 풀이의 의의 및 맺음

이 논문은 1926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낱말이 많고, 한자가 많이 쓰였다. 또한 아직 표준어가 사정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투리도 다수 사용되었으며, 일본식 외국어의 발음으로 기록된 것도 다수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으므로, 이를 쉽게 풀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즉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낱말은 풀이를 두기로 하였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1926년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상을 외솔은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둘째, 1910년에 이른바 ‘한·일 강제 합방’이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큰 사건들을 목격하고, 외솔은 큰 충격을 받았다.

셋째, 일본에서 십 여 년 간의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우리 겨레도 갱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넷째, 외솔이 이 논문을 쓴 때는 33세가 되던 해인데, 그의 넓고 깊은 학식은, 어려서 공부한 유교 경전의 영향과 서울의 신식학교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일본에서 수학한 풍부한 학문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유적·유물 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아마도 필자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여섯째, 이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외솔의 조국과 우리 겨레에 대한 애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곱째, 외솔은 처음부터 우리 말·글에 대한 연구가 주전공이 아니었음에도, 결국

우리나라의 부흥과 겨레의 갱생은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같고 닳음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여덟째, 겨레의 풍습이나 습성 등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음을 볼 때 외솔의 선견지명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정치·교육·경제·사회 등에 대한 외솔의 예견과 개선의 지침 등은 오늘날 많이 반영되었으나, 아직도 그 잔폐가 남아 있음도 확인이 된다.

참고문헌

- 김석득(2000),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영신(2002), 겨레 학문의 선구자 외솔과 한결의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2009), “외솔 최현배의 사상과 나라사랑,” 한글 563돌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외솔회.
- _____(2010),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교육 철학,” 외솔 서거 40주기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외솔회.
- 최현배(2019), 외솔 <문학·논술·논문> 전집 1,2,3,4, 서울: 외솔회.
- 허 응(1993), 최현배-우리말 우리 일에 바친 한평생, 서울: 동아일보사.

최현배 선생의 학문 세계



권재일

최현배 선생의 학문 세계

권재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글학회 회장)

1. 머리말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돌아가신 오십 돌을 맞이하여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우리말 우리글 연구에서 가장 우뚝 선 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이룩한 학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솔 선생께서 돌아가신 오십 돌에 선생의 학문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솔 선생은 나라 잃은 어려운 시대에 주시경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말 우리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는 것이고, 민족 문화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솔 선생 학문의 성격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말글의 ‘연구’와 ‘사랑’, 둘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외솔 선생의 학문은 국어 연구를 언어과학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지키고 가꾸는 사랑 운동을 실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솔 선생은 탁월한 학문 업적을 남긴 국어학자이자, 우리 민족 문화와 정신을 곳곳하게 지킨 국어 사랑 운동의 실천가였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러한 외솔 선생의 학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¹⁾

외솔 선생은 생전에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²⁾ 그 가운데 학문 업적으로 가장

-
- 1)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한글학회가 주최한 “56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13년, 울산)에서 발표자가 ‘외솔 최 현배 선생의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다듬은 것이다.
 - 2) 외솔 최현배 선생은 많은 저서와 논문, 그리고 논술, 문학작품 등을 남겼다. 그러한 저술은 다음 두 전집에 실려 있다.
 1. 최현배 (2012), “외솔 최현배 전집”(모두 28권),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 최현배 지음 외솔회 엮고 옮김 (2019),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모두 4권), 채륜.

탁월한 저서는 1937년에 첫 발간한 “우리 말본”과 1940년에 첫 발간한 “한글갈”입니다. “우리 말본”은 현대 우리말의 음운, 단어, 문장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며, “한글갈”은 우리 옛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이제 이 두 저서에 대해 살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솔 선생의 학문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솔 선생의 학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보아 온 여러 선현들과 학자들의 관점에 대한 허용 선생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통해 보면 외솔 선생 학문의 성격이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

허용 선생은 ‘우리 말글을 보아 온/보는 두 가지 눈’이란 글에서 국어학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허용 1999).

“우리들이 우리 말과 글을 보는 눈은 두 가지다.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말글을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 말글을 보듯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부정적인 눈은 외국 말글에 대해 우리 말글을 낮보는 사람들도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 앞것은 말글에 대한 민족사관이고, 뒷것은 말글에 대한 식민사관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은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역사의 기록에 따라, 세종의 민족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과 그분의 독창적인 머리와 그분의 진취적 성격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낸 밑바닥이 되었음을 높게 기리는 국어학자들이 있는 반면, 훈민정음은 그러한 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자의 소리를 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겨레의, 우리 역사와 우리 말글을 보아 온/

보는 눈이 두 가지인데, 이러한 역사를 짚어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은 우리 말과 글을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태도로 배워야 할 것이며, 연구해야 할 것이며,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김부식-최만리-신흙’과 같은 한학 선비들의 국어관을 물리치고, ‘세종대왕-김만중-주시경-최현배’의 줄을 잇는 선에서 국어를 보고 연구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식민사관이 우리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듯이, 일본 학자들이 우리 말글을 연구한 그 태도가 지금도 우리 국어학자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우리 말본”과 외솔 선생의 언어학 연구

3.1.“우리 말본”의 의의

“외솔 선생이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 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서, 우리 민족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적인 우리 말에 대해 앞뒤 모순 없는 체계를 세워 연구한 결과가 바로 “우리 말본”이다.” 이 말씀은 허웅 선생의 “우리 말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학문적인 의의를 밝혔습니다.

- (1) “외솔의 “우리 말본”은, 그 자료의 풍부함과 풀이의 정밀함과 체계의 독창적인 점으로 보아, 그 앞사람에서 크게 비약했음은 물론이며, 그 뒤, 반 세기가 더 지났는데도, 자료·풀이·체계에 있어서 이를 따를 만한 업적이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 말본”은 실로 20세기 초의 국어학의 금자탑이다. 이 책은 읽고 또 읽을 필요가 있으며, 잇고 또 이어받을 값어치가 있는 명저임을 강조하여 둔다.” [허웅 1993]

“우리 말본”에 대해서, 외솔 선생의 제자가 아닌 학자의 평가를 참고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병희 선생의 글입니다.

(2) “『우리 말본』은 비단 외국학설뿐만 아니라, 주시경이나 김두봉과 같은 앞선 학자들의 문법연구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방대한 국어자료를 정확하게 분석, 정리하여 정연한 문법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어떤 언어관에서든, 앞으로의 국어문법 연구는 『우리 말본』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만큼 외솔의 문법 연구는 훌륭하였던 것이다.” [안병희 1985]

3.2. 연구 대상

그러면 이제 “우리 말본”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³⁾ “우리 말본”에서는 그 연구 대상을 우리말의 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말에는 일정한 본이 있는데, 그 본을 말본이라 하고, 그 말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본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낱말을 서로 엮어 붙여서 쓰는데, 말본이란 곧 낱말을 부러 월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본은 개인의 머릿속의 생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말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소리갈’과 ‘말본갈’이 그것인데, 말본갈은 다시 씨갈과 월갈로 나뉩니다[3-4]. ‘씨갈’이 월의 구성 재료인 낱말의 형식과 월에서의 작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월갈’은 월에 관한 여러 현상을 밝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월갈을, 말로써 한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형식을 기술하여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 낱말이 곧 말 전체가 아니요, 말본은 낱말을 부러서 월을 이루는 데에 성립하는 것인즉, 낱말을 닮는 씨갈은 다만 월갈의 차림이 될 따름이요, 그 자체가 곧 말본갈은 아니다. 말본은 확실히 월갈에서 그 구실을 다 이루는 것이다. 곧, 월갈은 씨갈에서 연구한 낱말이 어떻게 서로 엮히어서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게 되는가, 그 운용 관계를 대체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3) 1937년에 첫 출판된 “우리 말본”의 마지막 수정판은 1971년의 ‘네번째 고침판’이다. 오늘 발표에서 인용하는 내용의 [] 속 숫자는 1971년판의 항목 번호를 가리킨다. 그리고 제3장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발표자의 앞선 연구 권재일(1993 및 2000)의 내용을 따른다.

[4, 529].

씨갈은 생각을 나타내는 재료를 연구하는 분석적, 정지적인데 비하여, 월갈은 그러한 재료로 월을 만들어 생각을 나타내는 본을 연구하는 종합적, 활동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월갈은 씨의 상관적 운용론으로, 낱말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상관적인 운용을 연구하는 것을 월갈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말본”에서 월갈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 하면 말본갈의 중심 되는 목표가 월갈에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여러 낱말을 서로 엮매어서 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씨갈보다는 월갈이 말본갈의 핵심적이며 궁극적 목표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월 구성의 규칙과 원리를 밝혀 설명하려는 현대 언어학 연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본”에서 기술한 월갈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월갈의 범위

1. 모두풀이
2. 월의 밑감
3. 월의 짚조각 혹은 조각
4. 월의 조각의 서로맞음
5. 월의 갈래
6. 월점치기

여기에서 현대 언어학의 월갈의 주요 연구 대상을 모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말본”은 대단히 체계적인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성분에서 제시한 어순, 생략 현상, 그리고 성분 사이의 제약 현상 등은 현대 언어학의 주요 과제로 그대로 계승되어 있음은 주목할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말본”은 우리말 말본 연구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3. 연구 방법

“우리 말본”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

은 서술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5) 말본은 개인의 머릿속의 생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귀납적으로 그 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본갈의 본은 기술적, 설명적임이 그 본색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 번 발견되어서 일반이 인정한 말본갈의 본은, 뒤에 그 말을 쓰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규범적이 되는 것이다[3].

위의 서술에서 우선 귀납적 방법론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본의 연구 대상으로서 말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본은 이러한 말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그 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서술에서 보면, 말본의 연구는 언어 자료를 관찰하고, 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이를 귀납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말본 연구의 본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본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외솔 선생은 말본 연구의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말본”의 목적은, 객관적인 개별 언어로서의 우리말의 정확한 기술과 설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글의 정리를 위한 실천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말 교육을 위한 실용적 가치에도 있었습니다. 외솔 선생은 우리 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고유문화를 떨쳐 일으키는 일이라 하고, 고유문화 가운데서도 말과 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 (6)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줄잡아도 반만 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यो,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적의 끼침이다[1].

“우리 말본”의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어 사실의 기술과 설명에 있어서의 ‘체계화’입니다. 주어진 특정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체계를 세워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당성과 일관성을

지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이 그 부분의 체계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현상 안에서 다시 다른 부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본”에서는, 월성분, 월의 체계, 그리고 겹월의 하위 체계 등 여러 기술에서 이러한 체계화의 기술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낱말의 구성과 월의 구성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를 세웠습니다. 관계를 별림(병렬), 어우름(합일), 거느림(주종)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겹씨의 하위 체계와 겹월의 하위 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625].

- (7) ㄱ. 병렬관계 : 별린씨 - 별린월
- ㄴ. 합일관계 : 녹은씨 - 이은월
- ㄷ. 주종관계 : 가진씨 - 가진월

“우리 말본”의 연구 방법 가운데 주목할 사실 가운데 또 하나는, 외래 및 선행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우리말 특성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솔 선생의, 민족적 이상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 감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외솔 선생은 일찍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넓었습니다. 김석득 교수는, 외솔 선생은 “신학문에 일찍 눈을 떠, 진취적 기상과 새로움을 개척하려는 이념을 지녔는데, 이러한 이념의 근본은 민족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러한 민족혼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본 것”이라 하였습니다(김석득 2000). 이것은 외솔 선생의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본”의 다음과 같은 서술도 맥을 같이 합니다.

- (8) 그러한즉, 남의 나라 말본을 닦아서, 우리 말본의 닦기에 참고로 씀은 괜찮을 뿐 아니라, 차라리 해야만 할 것이지만, 짬없이 남의 말본에만 따르고, 제 말의 특유한 성질과 법칙을 살피지 아니함은 아주 큰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느니라.[3]

일반적으로 외래 이론을 수용하는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유형은 무비판적인 수용의 태도이고, 둘째 유형은 수용에 대하여

무비판적인 배척 또는 무관심의 태도인데, 이러한 두 유형은 모두 다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유형은 비판적인 수용의 태도인데, 이것은 외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이를 독창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말본”에서 외래 이론을 수용한 태도는 셋째 유형에 속합니다. 우리말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바탕에서, 일본과 서양 학자의 이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용한 태도입니다. “우리 말본”을 보면, 일본과 서양 학자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 이론으로 풀기 어려운 언어 현상은 우리말 특성에 맞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워 모두 밝혔습니다. “우리 말본”의 어느 서술이든 우리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 연구사에서 가끔 “우리 말본”이 체계와 내용에서 일본 학자 야마다의 책을 모방하였다고 지적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비판을 가끔 대하게 됩니다(강복수 1972).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외솔 선생은 낱말의 정의와 품사 분류의 논리적인 틀을 위하여, 일본 학자 야마다의 이론을 응용하였지만, 야마다 책에는 없는 어떤씨를 설정했으며, 존재사를 그림씨 안에 넣고, 대신 잡음씨를 설정한 독창성은 권재선 교수가 바로 밝힌 바 있습니다(권재선 1988).

외래 이론의 수용과 관련하여 비난해야 할 사실은 외래 이론의 무비판적인 모방이나 변안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말을 언어 자료로 삼아 연구했던 것은 바로 비난받아야 하는 수용의 태도일 것이고,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우리말의 특성에 맞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용하여 발전시켰던 연구는 우리가 오히려 지향해야 할 연구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본”의 어떤 서술이 단순히 일본 책의 어떤 것과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온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김차균 교수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김차균 1993).

언어 이론에는 여러 언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과, 특정 개별 언어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는 이러한 일반 이론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각 개별 언어를 기술하고 그 언어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언어 사실을 밝혀 개별 언어 체계를 세웁니다. 이러한 언어학의 방법에서 볼 때, 이론적 개념을 다른 언어학 책에서 수용, 응용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말본”이 일본과 서양 학자의 이론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말본을 최초

로 완벽하게,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서술했고, 그뿐 아니라 외래 이론으로는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언어 사실을 밝혀 우리말 특성에 맞는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은 우리말 연구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단 외래 이론뿐만 아니라, 주시경 선생과 같은 앞선 학자들의 연구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켰음을 “우리 말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솔 선생은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인 정신과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구체적인 학설까지 맹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분석적 체계를 지양하고, 종합적 체계를 세운 것이 그러한 한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 “우리 말본”의 연구 방법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어학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나라 안팎의 수많은 연구 업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말 특성에 맞도록 더욱 갈고 닦았으며, 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은 넓고 깊은 사색을 통하여 창안해 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구 방법이 지금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 월의 체계

“우리 말본”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월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는 ‘짜임새(구조)’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바탈(성질)’이라는 관점입니다. 바탈은, 말하는 이의 듣는 이에 대한 의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짜임새에 의한 월의 체계는 입자말-풀이말의 관계에 따라 ‘홀월(단문)’과 ‘겹월(복문)’로 체계화하고, 바탈에 의한 월의 체계는 의향법 체계에 의한 것인데, 배품월, 물음월, 시킴월, 피임월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먼저 짜임새에 의한 월의 체계입니다. “우리 말본”에서 월을, 그 짜임새로 따라, 홀월과 겹월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입자말과 풀이말과의 관계가 단 한 번만 성립한 월을 홀월이라 규정하고, 입자말과 풀이말의 관계가 두 번 혹은 그 이상 성립하는 것을 겹월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자말과 풀이말의 관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의 체계를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체계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말 기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겹월은 한 월에 둘 이상의 마디를 가진 월, 즉 입자말과 풀이말과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성립하는 월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겹월을 ‘마디의 결합관계의 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가진월(포유문), 벌린월(병렬문), 이은월(연합문)로 하위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겹월의 하위 체계를 세우는 데에는 무척 고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9) 나는 겹월의 가름에 대하여, 꺾 오래 동안을 두고 여간 고심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나라 말본을 따르고자 하여도 맞지 아니하며, 앞사람의 가름법을 따르고자 하여도 또한 맞지 아니하였다. …… 이 세 가지의 맺음 걸림과 그 걸림에 따른 겹월의 셋 가름은 저 야마다 님의 분류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름은 다만 단순한 모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월의 여러 가지의 실제적 성질을 분류 고찰한 결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다[625].

가진월은 어떤 마디가 월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월성분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으뜸마디가 딸림마디(어찌마디, 매김마디, 이름마디, 풀이마디)를 가진 겹월입니다 [626].

(10) ㄱ.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ㄴ. 향기가 좋은 꽃이 만발하였다.
 ㄷ.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
 ㄹ. 후덕한 사람은 인망이 높으니라.

벌린월은 각각 독립하여 대등한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맞선마디를 나열하여 한덩이로 만든 월이라 하였습니다. 앞마디의 풀이말은 나열형으로 뒷마디에 이은월을 말합니다.

(11) ㄱ.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ㄴ. 달은 지고, 까마키는 울고, 서리는 하늘에 찻다.

이은월도 각각 같은 자격을 가진 두 마디가 이어져 한덩이가 된 월을 말합니다.

앞마디의 풀이말은 나열형 이외의 씨끝에 의해 뒷마디에 이어집니다. 이은월을 따로 세우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찌마디’를 안은 가진월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은월을 세운 것은, 그 앞뒤 마디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이 아니라, 대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628].

- (12) ㄱ. 심기는 괴롭지마는, 거두기는 즐겁다.
- 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다음은 바탈에 의한 월의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본”에서는 월을, 바탈에 따라 다시 체계를 세웠습니다. 바탈은 말하는이의 듣는이에 대한 의향(태도)을 뜻한다. 베풀월(서술문), 시킴월(명령문), 물음월(의문문), 꺾임월(청유문) 등이 그것입니다.[633]

바탈에 의한 월의 체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풀이말의 태도에 따라, 월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공동적 동작을 하자고 요구하는 월이 꺾임월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말하는 이가 다만 자신의 개별적 생각을 나타내는 월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둘로 나누었습니다. 1) 생각을 말하는 이에게만 한정하고 듣는 이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월이 베풀월이고, 2) 반드시 듣는 이를 고려하고 그에게 어떠한 생각을 제출하는 것으로, 말하는 이의 생각을 중심으로 듣는 이가 그대로 하기를 요구하는 월이 시킴월, 듣는 이를 중심으로 그에게 어떠한 생각의 발표를 요구하는 월이 물음월이라 하였습니다.

(13) 바탈에 의한 월의 체계

- ㄱ. 개별적 관계
 - 1. 단독적 태도 베풀월
 - 2. 관계적 태도
 - [말하는 이 중심] 시킴월
 - [말듣는 이 중심] 물음월
- ㄴ. 공동적 관계 꺾임월

바탈과 관련한 월들에 대하여 “우리 말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말본 현상들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현대 국어학의 월갈 연구에서도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635-648].

첫째, 월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베풀월은 풀이씨의 베풀꼴로 끝맺습니다. 느낌월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근거도 형식적 특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시킴월의 형식적 특징은 풀이씨의 씨끝이 시킴꼴이며, 물음월은 풀이씨의 씨끝이 물음꼴이며, 피임월은 풀이씨의 씨끝이 피임꼴입니다.

둘째, 각 월이 가지는 말본상의 제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임자말의 경우, 베풀월과 물음월은 따로 제약이 없으나, 시킴월은 임자말이 2인칭이어야 하고, 피임월은 임자말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함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풀이말의 경우, 시킴월과 피임월은 움직씨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약 현상에 대한 연구는 현대 월갈 연구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각 월이 가지는 화용론적 쓰임을 분석하였습니다. 베풀월이 물음으로(14ㄱ), 물음월이 베풀(14ㄴ), 시킴(14ㄷ), 피임(14ㄹ)으로, 피임월이 시킴으로 쓰이는 경우(14ㅁ)을 제시한 화용론적 해석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14) ㄱ. 누구에게 “나는 못하겠다.”(↑)

(물음: 못하겠다고 하느냐?)

ㄴ. 너도 사람이냐?

(베풀: 너는 사람이 아니다.)

ㄷ. 영길아, 너는 밥을 안 먹니?

(시킴: 밥을 먹어라.)

ㄹ. 자네 같이 안 가겠는가?

(피임: 같이 가세.)

ㅁ. 나 그 책 좀 보세.

(시킴: 그 책 좀 보여 주어라.)

4. “한글갈”과 외솔 선생의 훈민정음과 문헌 연구

4.1. “한글갈”의 의의

“한글갈”은 “우리 말본”과 함께 외솔 선생의 주요 저서입니다. 1940년에 정음사에서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1976년에 “고친 한글갈”이라 하여 역시 정음사에서 고친판을 발행하였습니다. 허웅 선생은 그의 저서 “최현배”(1993년)에서 “한글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15) “우리 민족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한글을 연구 체계화한 결과는, “한글갈”로 나타났다. 물론 문자학은 오래 전부터 언어학의 한 가닥으로 있어 왔고, 또 한글에 대한 연구도 김윤경, 방종현의 저서나, 다른 이들의 논문들이 없지 않았으나,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어학의 한 가닥으로 체계화한 것은 이 “한글갈”이 처음이었고, 그 뒤에도 이 방면의 저서로 이를 따를 만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글갈” 초판의 머리말에서 이 책의 성격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들어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리어, 써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정음학)을 세워, 우로는 신경준, 유희의 유업을 잇고, 아래론 주시경 스승의 가르침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글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매는 역사편이고, 둘째 매는 이론편입니다. 역사편은 ‘한글쓰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한글에 대한 연구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마침 이 책의 지음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훈민정음의 원본이 발견되어, 그 본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싣고, 또 그 설명을 이 책에 풀어 넣어 훈민정음 연구에 큰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한글갈”에서는 한글 발전의 역사와 한글 연구의 역사를 구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말글을 연구할 수 있는 방대한

한글 문헌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론편에서는 여섯 편의 논문을 통해 외솔 선생 학문의 무한한 깊이가 빈틈없는 논거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여 국어의 문자론과 음운론의 통시적 및 공시적 체계가 규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어 문자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⁴⁾

4.2. “한글갈”에 나타난 훈민정음의 가치

“한글갈”에서 외솔 선생이 바라보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글갈”에서 외솔 선생은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밝히고 그리고 기리고 있습니다.

(16) ㄱ. “훈민정음”의 본문은 극히 간결하여, 몇 장에 불과함 …… 그러나, 이렇듯 간결한 가운데에도, 그 내용이 모든 요령을 다하였으니, 참으로 “훈민정음”은 그 속살과 함께 겉꼴도 잘 닦긴 문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349쪽].

ㄴ. 한글은 그 짜임이 가장 과학스럽고도 그 자형이 정연하고 아름다우며, 그 글자수가 약소하고도 그 소리가 풍부하며, 그 학습이 쉽고도 그 응용(맞춰쓰)이 광대하여, 글자로서의 모든 이상적 조건을 거의 다 갖추었다 할 만하니, 이 글자를 지어낸 세종대왕 한 사람 당대의 밝은 슬기가 능히 천고만인의 슬기를 초월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찬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고금이 다름없고, 안팎이 한가지니라[647쪽의 ‘한글 기림’에서].

ㄷ. 한글은 과학스런 조직을 가지고 민중 교화의 사명을 띠고 난 글자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가난하고 여리고 어지러운 뒤떨어짐을 이기고서,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어깨를 겨누고 나아가려면, 그 가장 근본스

4) 오늘 발표에서 인용하는 내용의 [] 속 숫자는 “고친 한글갈”의 쪽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제4장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발표자의 앞선 연구 권재일(1994 및 2012)의 내용을 따른다.

런 방도가 한글만으로써 글자 생활의 한길을 삼음에 있나니: 대한 나라의 참된 독립과 자유의 발전도 여기에서 꽃피며, 배달겨레의 민주주의스런 번영과 행복도 여기에서 열음열어, 겨레의 이상 “밝은 누리의 실현”도 이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글은 겨레의 생명이요 자랑이며, 나라의 힘이요 소망이다. 한글만 쓰기로써 겨레 문화를 빛내자 [650쪽 ‘남은 종이에 이 지은이의 기림을 붙인다’에서].

4.3. “한글갈”의 문헌 연구

“한글갈”은 한글에 관한 역사적 문제와 이론적 문제를 다룬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각 시대별로 간행되었던 한글 문헌 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있음이 큰 연구 성과입니다. 한글의 독립스런 쓰기, 한문의 뒤침, 한자의 뒤침, 외국말의 뒤침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 문헌들을 여섯 시기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서지 해설을 소상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외솔 선생의 문헌 연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세울 수 있습니다.

(17) 외솔 선생 문헌 연구의 특징

- ㄱ. 분류 방법의 독창성
- ㄴ. 고증 방법의 실증성
- ㄷ. 기술 방법의 체계성

첫째, “한글갈”에서의 문헌 분류 방식의 특징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각 문헌에 사용된 한글 쓰기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한글이 창제된 이래로 지금까지 간행된 한글 관련 문헌들을 일차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글 발전의 역사를 살피는 데에는 시대별이나 주제별 분류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이러한 유별 분류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계층적 분류 방법, 양분적 분류 방법 역시 독창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글갈”에서 고증 방법의 특징은 실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의 상고에서 실증적인 고증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훈민정음의 본문 부분에 대한 교감을 시도한 것도 역시 실증적 고증 방법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각 문헌들의 관련 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들 관련 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문헌에 대한 고증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고증 방법의 실증적이라는 평가는 판본을 실증적으로 고증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갈”에서는 원간본과 중간본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여러 이본 가운데 원간본을 밝혀내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한글갈”에서는 문헌의 간행 연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간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문헌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고증하였습니다.

셋째, “한글갈”의 기술 방법의 특징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체계적인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한문 뒤침부류의 경우, 우선 문헌을 편찬 시기별로 나누고, 각 시기 안에서는 왕조별로 나누고, 각 왕조 안에서는 연도,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원간본과 중간본의 관계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중간본이 다시 간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기술은 원간본 항목에서 이루어지지만, 중간본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별로 다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글갈”은 많은 양의 한글 문헌을 기술하여 한글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글 사용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헌들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고, 실증적으로 고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점이 바로 외솔 선생의 문헌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며, 또한 오늘날에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 외솔 선생 학문의 올바른 계승을 위하여

저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우리말 우리글 연구에서 가장 우뚝 선 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이룩한 학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허웅 선생은 ‘국어학계에는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

면, 외국 말글을 보듯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부정적인 눈은 외국 말글에 대해 우리 말글을 낮보는 사람들도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쳐 온 학자가 바로 외솔 최현배 선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외솔 선생의 학문은 국어 연구를 언어과학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지키고 가꾸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외솔 선생 저술 가운데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한 저서는 “우리 말본”과 “한글갈”입니다. “우리 말본”은 현대 우리말의 음운, 단어, 문장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며, “한글갈”은 우리 옛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우리 말본”의 연구 방법은 국어학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나라 안팎의 수많은 연구 업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말 특성에 맞도록 더욱 갈고 닦았으며,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은 넓고 깊은 사색을 통하여 창안해 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말 연구 방법이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글갈”은 많은 양의 한글 문헌을 기술하여 한글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글 사용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그 문헌들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고, 실증적으로 고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헌 연구 방법이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언어학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참고문헌

- 강복수 1972, 국어 문법사 연구, 형설출판사.
- 고영근 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권재선 1988, 국어학 연구사, 우골탑.
- 권재일 1993, 『우리 말본』의 월갈, 새국어생활 3-3, 국립국어연구원.
- 권재일 1994, 『한글갈』을 통해 본 외솔의 문헌 연구, 나라사랑 89, 외솔회.
- 권재일 2000, 『외솔의 말본 연구와 말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 나라사랑 100, 외솔회.
- 권재일 2012, 『세종 학문의 국어학사적 이해』, 615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한글학회.
- 권재일 2013, 『외솔 최 현배 선생의 학문』, 56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한글학회.
- 김계곤 1985, 『일제하 국어국문학 5대 저서에 대한 재인식, 최현배 - 『우리말본』』, 한글 190, 한글학회.
- 김석득 1985, 『일제하 국어 국문학 5대 저서에 대한 재인식, 최현배 - 『한글갈』』, 한글 190, 한글학회.
- 김석득 2000,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주원 2020, 『한글갈』과 『훈민정음』, 한글새소식 571, 한글학회.
- 김차균 1993, 『외솔 선생의 학문: 국어학사상의 위치』, 새국어생활 3-3, 국립국어연구원.
- 박영신 2020, 『겨레의 스승 외솔 기림』, 한글새소식 571, 한글학회.
- 서상규 2017, 최현배의 우리말본 연구 1, 한국문화사.
- 서상규 2018, 최현배의 우리말본 연구 2, 한국문화사.
- 서상규 2020, 『우리말본』에서 위대한 한 언어학자를 뵈다, 한글새소식 571, 한글학회.
- 안병희 1985, 『최현배』, 국어연구의 발자취 (1),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호권 1993, 『한글갈』의 문헌 연구, 새국어생활 3-3, 국립국어연구원.
- 주시경 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 2012, 외솔 최현배 전집 (모두 28권),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현배 지음 외솔회 엮고 옮김 2019,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모두 4권), 채륜.
- 허 용 1974, 『외솔 선생의 생애와 학문』, 나라사랑 14, 외솔회.
- 허 용 1993, 최현배, 근대인물한국사 408, 동아일보사.
- 허 용 1999, 『우리 말글을 보아 온/보는 두 가지 눈』, 한힌샘 주 시경 연구 12, 한글학회.

외솔이 풀이한 ‘삶’의 바탕과 짜임



박영신

외솔이 풀이한 ‘삶’의 바탕과 짜임

- ‘삶의 문제 관심’ 새김 -

박영신(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1. 돌아봄

외솔 최 현배(1894-1970)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쉰 돌이 되는 이 해, 역사를 기억할 줄 아는 이들은 그가 남긴 학문의 열매와 삶의 진정성을 떠올리며 새삼 마음을 가다듬어 옷깃을 여밈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일제 강탈 밑에서 기운이 꺾인 겨레의 생기를 북돋고자 하여 쓴 《조선민족쟁쟁의 도》(1926)와 우리 말글의 이치를 캔 《우리말본》(1937), 그리고 해방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겨레의 삶을 일깨우고자 하여 쓴 《나라사랑의 길》(1958)이 비범함에 미치고 있을뿐더러, 생각 없이 나날의 삶에 묻혀 사는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어놓기 때문이다. 오늘에 이르러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외솔은 우리 역사에 우뚝 솟은 ‘한글 사람’이자(허 응, 1993; 김 석득, 1994; 2000; 남 기심, 1982), 차분히 새겨보아야 할 ‘생각의 사람’이다(박 영신, 1994; 2010ㄴ: 124-125; 2020).

내가 들어선 배움의 길이 우리말글 연구 쪽이 아니어서, 강의실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도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에는 ‘예배 시간’(채플)이 있어서, 외솔 선생이 그 자리에 나타나 전교 학생들을 향하여 삶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곤 했고, 《나라사랑의 길》이 나왔을 때는 곧장 사서 읽고, 삶의 보람을 다시 새겨보기도 했다. 그 때부터였다. 나는 그의 글에 담긴 ‘생각’을 지나치지 못하고 뜯어보고자 했고, 조각이나마 살펴보며 그의 생각 즐기 하나라도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도 지니게 되었다(박 영신, 2010ㄴ: 197-199). 이러한 마음가짐은 대학 선생이 된 다음에도 내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의 무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말글을 갈고 닦아온 한글 사람의 얼을 마음에 새겨 강의 때면 기회를 잡아,

우리말글의 소중함과 거기에 얽힌 역사를 전하고자 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는 연세대학이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이란 바로 이러한 역사에 있다고 알려주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지식 사회가 지켜온 국한문혼용의 오랜 관행에 맞서, 한글로 글을 적어 내고자 했고,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학제간 학술 계간지 《현상과 인식》을 펴낼 때는 창간 동인의 뜻을 모아 학술지의 이름을 아예 한글로 쓰고, 학술지에 실리는 글도 모두 한글로 적도록 이끌고자 했다.

그러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연 〈국학연구발표회〉에서 “사회 사상가로서의 외솔 최현배”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수 있었고, 이 발표문을 다듬어 《東方學志》에 실을 수도 있었다(박 영신, 1993/1994). 내친김에 나는 학술모임도 꾸렸다. 그 때 내가 맡아 엮어냈던 《현상과 인식》의 이름으로 〈외솔 최 현배의 삶과 사상--나신 백돌을 기리며--〉라는 주제를 내걸고 학술모임을 열겠다는 뜻에서였다. “모시는 글”에서 나는 ‘외솔 나신 백돌’을 맞아 “한글학자로서의 외솔 최 현배를 넘어, 우리 역사 안에 굳게 자리한 사회 사상가로서의 그의 삶과 생각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사상가 됨’을 힘주어 내세웠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외솔의 교육 사상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발표자의 글들을 묶어 그해 가을(18권 3호) ‘특집’으로 엮어내기도 했다.1)1) 이 학술모임은 1994년 10월 25일(화) 늦은 2시-5시, 이제는 헐리어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원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강원대학교 총장 문 선재 박사의 사회로 네 글이 발표되었다: “외솔과 언어 민족주의: 한문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조 성윤), “외솔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준식), “외솔의 사회 사상 연구”(노 치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외솔의 생각”(박 영신).

이후에도 외솔의 생각은 두고두고 내가 맞닥뜨려야 했던 생각거리였다. 그의 생각이 이모저모를 살피어 배우고자 했고, 나/우리의 모습을 둘러보고자 했다. 그러는 가운데 새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그가 그리고자 한 ‘나라 그림’도 알아보고(박 영신, 1995), 그의 나라사랑에 대한 생각(박 영신, 2010ㄱ)과 교육 철학을 다시 살펴보고(박 영신, 2010ㄴ),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널리 관심을 모으게 된 ‘시민’ 기르기에 주는 뜻은 무엇이고(박 영신, 2012), ‘민주 교육’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알아보고자 했다(박 영신, 2014).

2. 삶의 물음

외솔은 다른 보통 사람과 달랐다. 어릴 적부터 그러하였다. 얼핏 보면 야심찬 그 나이의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지향성을 가진 듯이 보인다. 시대의 전통에 따라 그도 동네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고 시대의 변화를 보고 신식학교로 옮겨 공부하다가, 한양으로 올라가 명망 있는 상급학교에 들어간 특별히 두드러지게 공부 잘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대의 습속과 분위기에 맞춰가기만 하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에 그도 들어서 있었다. 어쩌면 그 또한 그 시대의 성공을 역세계 뒤쫓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고 그러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한 바로 그 해였다. 기울던 나라가 마침내 왜인의 손아귀에 들고 말았다. 왜인에 의한 강탈이었다. 이른바 한일 합방은 그저 어리둥절한 일로만 여길 수 없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만사를 제치고 겨레 모두가 목 놓아 애통하고 통곡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다. 약삭빠른 입신출세주의자들은 나라를 잃은 치욕의 역사조차 자신의 출세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내 마음을 정리한 다음 권력을 쥔 왜인의 호령에 맞춰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한뭇 잡으려는 궁리만을 짜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역사의 단절은 개인의 입신과 출세를 위한 자그마한 조절과 적응을 요구하는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었을 따름이다. 세상이 어찌 되어가든 권력자와 한통속이 되기만 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법에 따라 자신을 다독이기만 했다. 소년 외솔은 이들처럼 천하지 않았다. 이들처럼 가뻐지 않았고 얄지 않았다. 그는 나라를 빼앗긴 모욕감과 함께 북받치는 비통함으로 가슴 깊이 괴로워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씨름했다.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적은 몇 마디 글귀에서 이 점을 찾아 읽을 수 있다. 《조선민족갱생의 도》가 처음 책으로 나온 다음 서른 해를 넘겨 다시 박아낼 때 “중간 머리말”이라 하여 붙여둔 짧은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열 일곱 살 적에 서울로 올라와서, 중등 학교에 입학하자, 그 여름에 나라를 잃어 버린 비통을 겪었다. 나라잃은 백성으로서, 정복자의 압제 정치 아래에서 목숨을 살면서 공부를 하자니: 압박과 설움, 수치와 통분 속에서, 현재를 견디어 장래를 근심하기에, 남모르는 마음의 고생은 끝힐 날이 없었다.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최 현배, 1926/1971: 3).

왜인에게 나라를 잃은 역사 앞에서 그는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입신출세가 보장된 길이 열려 있었으나 그는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출세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한, 날랜 자들의 논리와는 달리, 그는 부끄럽고 원통한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물음은 던졌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 나이에 이 삶의 물음에 마주했다.

이러한 물음을 던진 것은 삶에 대한 판에 박힌 생각을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살기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물었던 것은 그 자신 현실은 어쩔 수 없다며 묵묵히 현실의 장단에 맞추고자 하는 삶의 행태에 대한 가시지 않는 깊은 회의와 불신의 표현이었고, 이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이와는 다른 어떤 삶에 대한 사무치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다. 이 삶의 물음에 뒤이어 그는 자신을 향하여 다그쳐 물었던 그 물음,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 또한 현실이 주는 편리와 이익을 좇아 무턱대고 공부 길에 들어서는 시대의 타성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불편함과 불만족의 표출이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여 입신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자신 앞에 훤히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다른 대안의 길에 문을 열어두고자 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현실에 안주하여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면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그 자신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물음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한 줄기 돌파의 빛을 만났다. 고향 선배를 따라 주 시경이 이끈 조선어강습소에 발을 들여놓았다. 여섯 해 동안 열심히 다니며 한글과 말문을 배웠다. 이 배움에서 그는 '겨레 정신'을 깨우쳐 "필생의 근본 방향"을 정하였다(최 현배, 1955/2019(1): 99). 스승의 가르침을 이을 제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한글을 갈고 닦아 이를 널리 펼치는 일에 몸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어 공부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빠져든 불분명한 삶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엮어갈 삶의 의미도 밝혀볼 수 있었다. 그는 한글을 갈고 닦아 널리 펼치기 위하여 있

는 힘 다 쏟아 부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 한 가운데 높이 서 있는 ‘한글의 사람’이 되었다.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한글을 ‘목숨’이라고 여긴 외솔의 한글 연구는, 언어학을 위한 언어학의 학문 관심이나 언어학상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의 공부는 “겨레의 생존 번영을 위한 연구”였다(최 현배, 1965/2019(1): 136). 이 점에서 그의 ‘한글 연구’는 식민지의 언어를 대하는 왜인의 연구 관심과 그 연구 전통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분명 한글 공부는 그가 그린 삶의 물음에 대한 해답의 길잡이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던진 삶에 대한 그때의 물음을 한글 공부에 온전히 다 풀어줄 것은 아니었다. 한글은 ‘삶의 물음’ 안에 들어있었지만 이 물음에 대한 해답 그 자체이기보다는 이를 떠밀어주고 떠받쳐주는 방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의 이치를 알아내는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삶의 물음에 사로잡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캐어 찾고자 하여, 더 공부해야 한다는 뜻을 굳히고 그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에서 공부하여 졸업했고, 돌아와 잠시 가르치다 다시 교토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들어가 교육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한 해를 더 공부하기도 했다(윗글: 100). 다시 위에 적은 “중간 머리말”로 돌아가 보면(윗글: 3), 외솔은 자신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삶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여, 긴 세월 동안 공부했고, 그 해답의 열매로 《조선민족경생의 도》를 지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삶에 대한 물음을 어떻게 풀어 답하고자 했는가? 이를 위해서는 1926년 가을부터 <동아일보>에 66회로 나누어 실은 다음, 1930년에 책으로 묶여 나온 《조선민족경생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 책은 한글 연구의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들추어 말하는 불후의 저작 《우리말본》(1937)에 앞서 나왔고, 겨레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이 광수의 《민족개조론》보다 네 해 뒤에 나왔다. 이 글은 외솔의 사상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사에서 보기 드문 출중한 저작으로 ‘고전’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이 까닭에 이 책은 벌써부터 여러 눈길로 논구되어 왔다. 나 또한 이 저작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자 한 바 있다(보기, 박 영신, 1993/1994; 2020). 실제로 외솔의 사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게 이 저작을 만나 그 속에 든 생각을 논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근본 되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외솔 자신이 던졌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그의 글에 담긴 생각을 뜯어보고자 한다.

3. 삶의 힘

《외솔 최현배 전집》(2012)과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2019)에 들어 있는 여러 글 속에 나타나 있듯이, 외솔의 생각은 어느 하나로 말할 수 없고 어느 전공의 틀 하나에 가두어둘 수 없다. 그의 생각은 통상의 학문 테두리를 넘어선다. 교토대학에서 그가 택한 전공은 교육학이었다. 그는 앞서 사회학을 공부했는가 하면 철학을 공부하였고 철학부에 속한 교육학을 전공으로 택하여 교육 사상을 공부했다(최 현배, 1955/2019(I): 101). 그의 전공 분야는 오늘날 가까이에서 보는 좁고 얇은 교육학이 아니었다. 삶의 문제를 궁구하는 학문이었다. 사람의 삶을 삶답게 바꿔 놓고자 하는 ‘교육학문’이었다. 이러한 학문 관심에서 그는 스위스의 교육 개혁가 페스탈로치의 사상에 이끌리었다. 이것은 분절된 학문 분과의 협소한 교실 안에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칸트를 비롯한 철학의 역사와 흐름도 널리 알아야 했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맑스의 유물론을 둘러싼 논쟁도 균형 있게 따져봐야 했다. 이 배움의 소용돌이를 헤쳐가면서 그는 삶의 물음에 답하는 삶의 학문을 찾아 나섰다.

《조선민족갱생의 도》는 ‘삶의 물음’에 대한 그의 해답이었다. 이 책 첫머리에서 그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풀이해준다. 우주 만물 가운데 바뀌지 않고 두루 퍼져 있는 원리를 ‘도’(道)라고도 하고 ‘로고스’(logos)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곧 “살음(生)”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가 말하는 ‘살음’은 삶이며 생명이다.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인다. 우주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활물’(活物)이다. 태초의 원형 그 어느 것도 변화지 않고 본 모습을 지킨 것은 없다. 끝없이 움직이고 끝없이 나아간다. “가장 그 살음(生)이 활발한 것이 이른바 생물”이고, “가장 그 살음(生)이 영묘한 것이 동물”이고, 동물 가운데서 진화의 정도가 가장 높아 “그 살음(生)의 작용이 가장 영귀한 것”이 사람이다. 살아있는 생물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다. “자유스러운 살음”을 추구한다.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사람은 ‘자유 발전’을 구한다. 이것을 사람의 본바탕이 되는 요구라고 하고는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돌덩어리나 빈껍데기

가 되고 만다고 한다(최 현배, 1926/1971: 13-14).2)2) 외솔의 글 가운데서 한문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에서 모두 한글로 바꿔 놓는다. 그때 <朝鮮日報>와 <東亞日報>는 서른 해 앞서 나온 서 재필이 순 국문으로 박아낸 <독립신문>의 정신에서 뒷걸음질 쳐, 국한문 혼용으로 박아내었다. 신문에 나뉜 실은 《조선민족갱생의 도》가 국한문 혼용인 것은 신문의 관행을 따른 것인 듯하다. 이 점을 미루어볼 수 있는 그의 글(1927년/2019: 특히 256-257) 볼 것. 외솔이 세상을 떠난 지 50돌이 되는 해를 맞아, 외솔회 회장 성 낙수 교수는 오늘의 한글세대가 쉽게 읽을 수 있게 이 책을 다듬어내도록 했다. 한자를 한글로 옮겨놓을 뿐만 아니라 풀이까지 더하고자 하여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왔다.

외솔은 이 ‘살음’의 원리를 우리 겨레의 문제와 이어놓는다. 그는 겨레를 향하여 ‘과연 생명의 자유 발전이 있느냐’고 묻는다. 시들어 기력이 떨어진 삶에 ‘자유의 발전’을 도모하여 융성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겨레의 ‘공동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힘을 그가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 ‘살음’의 기운이 겨레의 오랜 병치레로 쇠하여 약해진 까닭에 ‘살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생명의 자유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윗글: 1장). 그러나 그는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선천적 병’이 아니라고 본다. 그가 찾아본 겨레의 쇠약증은 유전 인자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마음의 질병이다. 마음의 병임을 깨닫고 떨쳐 일어나 생생한 기운을 되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윗글: 3장).

이러한 풀이는 그때의 ‘식자 지도자’들이 떠벌려온 주장에 대한 단호한 반론이다. 그들 스스로 이 질병에 걸려 앓고 있는데도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입으로 “한숨”이나 내쉬고는 엉뚱하게도 피폐한 ‘경제 형편’을 들먹이면서, “경제 생활조차 요모양”인데 어떻게 “조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여망”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실망감만 키우고 있었다. “경제상 원칙으로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뜻을 박고는 “워낙 무능 무력하니까, 다시 무엇 해 볼 수가 있어야지” 하는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는 “그저 돈이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주기까지 했다. 그들이 쏟아내는 “낙담 천만의 장탄식, 부정(否定) 제일의 달관이 방방곡곡에 그득” 넘쳐나고 있었다(윗글: 105-106). 이러한 한탄이 온 나라에 진동하고 있을 때, 외솔은 이에 맞서 겨레의 ‘생기’를 떨쳐 일

으며 세움이 다급하고 절박함을 감지했다. 그는 붓을 들어 민족의 ‘갱생’을 외치고자 했다.

무릇 사람이란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는 하나, 그 조건의 압력 앞에 무릎 꿇고 조건의 요구와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타율의 삶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생기’는 삶 자체를 조건에 내맡기고는 고분고분 조건에 맞춰 움직이는 삶 저쪽의 자율의 삶을 이른다. 이 옹골찬 살음을 외솔은 제창한다. 조건의 힘에 머리를 숙이고 옆드리는 비굴한 삶에 맞서 이를 뚫고 나아가 그 조건의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겨레의 살음을 되살리자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 주장이 튀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외솔은 미리 내어다 보았다. 우선 유물론 쪽에서 내놓을 반대 의견을 그리면서(윗글: 156쪽 아래), 그는 유심과 유물의 단순 대립의 구도 어느 한 쪽에 서 있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사람이란 ‘물질만으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신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다’는 이 엄연한 진실을 미루어 볼 때 살음의 문제는 ‘유심’이나 ‘유물’ 어느 하나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과 물질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역동의 관계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전제한 다음 그는 삶을 다스리는 것은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물질이 주체가 아니라 정신이 주체라는 것이다. 물질은 정신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일제 강탈 밑에서 겨레가 겪어야 하는 궁핍한 경제 상황의 절실함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도 이러한 생각에 함께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혁파해나가야 할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겨레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 겨레의 절실한 요구가 ‘입과 옷과 집’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물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생기’가 절로 뒤따라 생겨난다는 단순한 생각에 동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박 영신, 2002: 58-64). 그는 ‘세계의 무산자는 단결하라!’는 외침도 궁핍한 물질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큰 생기’의 발로라고 풀이한다. ‘생기’는 조건의 노예 되기를 마다한다. 조건의 힘에 맞선다. 반항하고 저항한다(최 현배, 1926/1971: 163-165). ‘생기’ 또는 ‘살음’은 물질 의존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예측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이다. 물질 조건을 돌파하고 이 조건 자체를 다스리고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이다. 외솔은 이 “정신의 갱신—생기의 진작”이 겨레

‘갱생의 근본 원리’라고 한다(윗글: 167).

오늘날의 학문 상황에 견주어 보아도 외솔의 유물론/맑스주의 이해는 전혀 손색이 없고, 맑스주의 비판 또한 조금도 핏소하지 않다. 맑스 이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시도할 수 없는, 실로 날카롭고 매섭게 그의 이론을 해부하는 품이 돋보이고 놀랍기도 하다. 역사의 변동을 하부 구조에 의한 상부 구조의 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규격화시키는 기계주의 논리 곧, 일반인에게 널리 퍼져 있던 이른바 속류 맑스주의/유물론과 구별되는 ‘진정한’ 맑스주의/유물사관의 논리도 익히 알고 이를 정당히 평가하기도 한다.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윗글: 168). ‘살음’에는 유물이나 유심으로 갈라 말할 수 없게 이 둘이 맞물려 있고 그러한 원동력에 힘입어 역사가 움직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솔은 맑스주의 유물론이 “궁극의” 결정 요소는 경제라고 한다는 점을 들어 이 낱말의 애매한 점을 들추어내기까지 한다(윗글: 171). 맑스 이론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역사를 여기에 옮겨놓을 이유는 없다. 다만 이 문제는 지난 세기 후반 맑스주의 열기를 새롭게 불러일으켰던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가 길게 논의한 주제와도(박 영신, 1984/1992) 이어지는 것으로, 맑스주의 이론을 꿰뚫어본 외솔의 논의는 사회 이론에 관심을 두어온 이들에게 뜻밖의 흥밋거리로 다가온다는 점을 이 대목에서 적시해 두고자 할 뿐이다.

‘살음’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풀이는 한 저작의 산물이 아니다. 앞에 적어둔 대로 그가 들어선 공부 길에서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첫 열매인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낳게 한 공부의 씨앗이 있었다. 살음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쇠약한 겨레가 생기를 되살리는 방도를 그는 페스탈로치의 교육학문에서 찾았다. 외솔이 남보다 일찍이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탐구했지만 그의 사상을 주석하는 데 자신의 학문 관심을 불박아 두지 않았다. 그의 학문 관심은 ‘사람의 삶’에 놓여 있었다. 교육학을 공부하되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삶의 학문’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사회-경제 조건에 적당히 순응해 살거나 시대의 흐름에 순순히 발맞춰 사는 ‘다수의 삶’에 물음을 던지는 ‘삶의 문제 관심’에서 우러나온 학문 세계였다. 그는 이 주제로 졸업논문을 썼다.3)3) 1925년 쓴 이 교토대학 졸업논문은 1962년에 펴낸 《나라 건지는 교육》의 넷째 매에 들어있다(최 현배, 1962: 165-221).

《조선민족갱생의 도》는 이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쓴 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이런저런 점을 살펴 논한 바 있기에(보기, 박 영신, 1994, 2002, 2010년, 2014), 되풀이하지 않고 다만 이 책은 졸업 논문의 주제와 뿔 수 없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4. 삶의 뜻

‘살음’이란 쉽 없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간다. 그러므로 펼쳐 생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외침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한 살음은 움직이는 힘일 뿐이다. 살음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외솔은 이를 ‘이상’이라고 부른다. 겨레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를 진작”해야 하나 생기 진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날뛰자고 하여 생기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생기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뜻을 갖는다. 외솔의 말을 옮겨 적어보면,

진작된 생기를 인도할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이상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면, 비록 생활의 의기(意氣)가 아무리 강렬히 진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처럼의 진작의 온전한 역량과 참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대양에 표류하는 선박을 짓고 말 것이다”(최 현배, 윗글: 114-115).

그러므로 삶은 모름지기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 이상을 향하여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람 따라 이곳저곳을 무가치하게 멍하니 떠돌이 다니는 얼빠진 삶으로 떨어지고 만다. 삶은 이상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겨레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을 지녀야 한다.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외솔은 생기를 일으키는 것과 이상을 세우는 것은 겨레 갱생의 ‘두 날개’이고 ‘두 바퀴’라고 한다(윗글: 115). 겨레는 뿔뿔이 제 작은 이상을 향하여 가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다다라야 할 공통된 ‘큰 이상’을 간직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일러 “민족적 이상”이라고 한다(윗글: 115, 120).

외솔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다. 되새김 없이 이 낱말을 마구 끌어 쓰는 무리와 달리 그는 신중하게 다루어 쓴다. 이 개념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이 난무했던 세계 사상의 흐름도 그가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민족’은 인류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편협한 인종주의의 찌꺼기쯤으로 여겨 경멸과 극복의 대상일 뿐이라는 무시 못 할 강력한 주장이 있다는 것도 익히 인지하였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민족’의 뜻을 밝히기 위해 그는 폭넓은 식견을 동원하여 의외로 길게 이 개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윗글: 특히 115 아래). 그는 혈통, 생활 근거지, 언어, 특질, 역사에 비추어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 그의 ‘민족’ 풀이와 생각에 대하여 견해와 평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적절성에 대하여 미심쩍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쾌하게 밝혀둔 것이 있다. 그는 민족 지상주의나 민족 절대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서로 ‘싸우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서로 ‘돕는,’ 그의 말로 낯은 민족주의가 아닌 “신문화적(新文化的) 민족주의”를 내세운다(윗글: 121-122). 그러므로 우리 겨레가 지닌 문제는 조선 민족으로서 지니는 특유의 문제와 함께 세계 만민과 더불어 공동으로 지니는 문제, ‘두 겹’이다(윗글: 126). 그의 민족주의는 둘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두 겹’의 문제 위에 놓여 있었다.

민족에게는 반드시 ‘민족의 큰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마치 자그마한 개울이 큰 강을 이루듯이 개성을 가진 개인의 이상이 ‘민족의 대이상’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삶은 제 목숨을 건지는 데서 그 뜻을 이루지 않는다. 제 목숨을 귀히 여겨야 하고 제 집안이 제대로 서고 집안 식구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엮어갈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기에 삶의 목적을 박아두고 그러한 수준에 삶의 이상을 꽂아둔다면 그 삶은 그지없이 답답하다. 그것은 겨레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그가 자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듯이 ‘일신일가’(一身一家)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사사로운 좁은 삶의 지평에서 떨어져 나와 겨레의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의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윗글: 127-128; 박 영신, 2002: 20-21, 51-55; 2010ㄱ: 217 아래).

그의 논지는 여기에 멈춰있지 않다. 민족의 이상을 민족의 유지-보존에 붙여 놓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겨레/나라 사랑은 민족의 테두리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 민족에서 출발하되 민족 그 너머로 나아간다. 그가 말하듯이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영묘하고’ 진화의 정도가 높아 ‘가장 영귀한’ 사람이라면 삶의

이상을 자기 이익이나 집안의 이익, 겨우 민족의 수준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멎지 않는다. 그 수준에서 멎는 것은 사람됨의 수치요 사람다움의 모욕이다. 그것은 ‘살음’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여 ‘살음’의 뜻을 거스르는, ‘반’살음이다. 타고난 살음의 축소와 그 뜻의 거역은 존재에 대한 ‘반’존재 행위이다.

외솔이 그린 민족의 살음은 좁은 울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범세계 인류 공동체로 뻗어 나아간다. 민족의 큰 이상이 이르러야 할 종착점은 민족에 있지 않다. 그의 말을 그대로 따와 적어면, “민족적 대이상은 또 드디어 고원한 인류적 이상이란 왕양(汪洋)한 대해가 되는 것”이다(윗글: 120-121). 살음의 마지막 뜻은 이 넓고 넓은 인류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상의 물줄기에 잇닿아 있다. 살음은 개인의 영달과 행복의 테두리도 벗어나고, 가족의 생존과 부귀의 테두리도 벗어나 그 너머 민족의 번영으로 나아가야 할 큰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이상은 민족의 테두리 안에 진치고 머물지 않는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 공동체로 나아간다. 살음의 이상이 다다라야 할 종착점은 인류이다.

겨레의 살음을 되살리는 ‘원리’를 말하는 가운데, 그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이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묻고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읽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낱말 하나하나의 윗자리에 작은 동그라미 점을 찍어 자신의 논지를 다시 풀이해주고자 했다(본문의 방점을 여기서의 아랫줄로 표함).

[...] 조선 민족의 고유한 특질과 특장을 자유로 충분히 발휘하여, 항상 부단의 창조와 불휴의 개조로써, 인류의 영원한 진보와 문화의 항구한 발달에 기여 보비(補裨)하여, 세계 진화의 기운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 조선의 민족적 이상이라 하노라. 아니, 이로써 우리 민족적 이상으로 수립하기를 여성(勵聲) 제창하는 바이다(윗글: 121).

더하고 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이 간결한 글월에는 생동감과 함께 호소력 넘치는 외침이 절실하게 들려온다. 앞에서 적었듯이, 겨레의 ‘생기 되살림’은 무분별한 맹목의 날뛸이나 설쳐댐을 부추기고자 함이 아니다. 살아남고자 하여 물질의 욕구에 휘둘러 맹렬히 발버둥을 치는 얇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따돌리고는 오로지 비좁은 자기 잇속에 내들리어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서로 맞서 싸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사람다워야 한다. 다른 생물체가 갖지 못한 ‘이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영귀한’ 구별된 존재에 어울리게 살아야 할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존재의 살음도 이상으로 나아가고 한 겨레의 살음도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이상은 인류의 진화를 돕고 그 일에 동참하는 높은 삶의 뜻을 이룬다.

이 이상을 위하여 현실 조건에 굴하지 않고 차라리 이에 대항한다. 겨레의 사람은 쇠약증에 빠져 자신을 바깥 조건에 내맡기지 않는다. 조건의 압력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견디고 버티는가 하면 이에 단호히 맞선다. 인류의 긴 역사를 뚫고 흐르는 ‘예언’의 비판 전통에 이어지고, 나아가 구약의 예언 전통 안에서 있던 맑스의 비판 의식에도 어울리는 말투로(박 영신, 2018: 15-39),4)4) 맑스가 세상에 태어난 지 2백돌이 되던 해 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연 학술 모임(주제: “맑스, 다시 만나다”/2018년 5월 26일/배재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내가 발표했던 이 글은, 맑스의 여러 얼굴을 검토한 다음 ‘결정론’에 치우친 ‘과학자 맑스’보다 논쟁을 자아내는 ‘예언자스런 맑스’가 더욱 큰 적절성을 준다는 논지를 편 바 있다. 이것은 물론 알튀세르의 논지 그 틀 안에 들어설 수도 그 틀과 어울릴 수도 없는 논지이다.

외솔은 겨레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분노’하라 하고 ‘저항’하라 한다(윗글: 155, 165). 이러한 삶의 보기는 멀리에만 있지 않다. 외솔은 역사의 가까운 보기를 아래와 같이 적어두었다.

[...]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 예외 없이 모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중에는 그 늪같은 원기가 넉넉히 이 병의 침해를 저항하여 완전한 건강을 보유한 이가 또한 적지 아니함을 나도 익게 알고 있다. 혹은 제 목을 찢러 죽고, 혹은 총검에 넘어지고, 혹은 해외로 탈출하여 와신상담하는 이도 있고, 혹은 국내에서 평생 일관의 의지로 유의한 사업에 종사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보건자(保健者)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민족적 존재가 아직도 그 의의를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또 장래 갱생의 여망이 있는 것이다. [...] 장래는 여기에 돌아올 것이며, 갱생은 여기에 봄을 맞날 것이다(최 현배, 1926/1971: 43).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다시 펴낼 때 외솔은 위에 적은 자신의 글에, “뒤적음”이라 하여 이러한 생각을 덧붙였다. 일제 강탈기 밑에서 겨레와 함께 사경을 헤맬 때 위와 같이 적었던 자신의 “소신과 소망과 예언”이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이루어

저 “겨레와 더불어 갱생의 봄을 맞았다”며 감격했다. 그리고 그의 신앙에 따라 “깊은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는 바이다. 1962.3.20.적음”이라고 했다(윗글: 같은 곳).

저항의 무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저항은 거리와 광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삶터가 곧 저항의 무대이다. 외솔이 말하는 저항은 살음의 징표이다. 사람이란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답게’ “도덕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교육은 이러한 사람을 길러야 한다(최 현배, 1926/1971: 188 아래; 1958: 419 아래; 박 영신, 2019: 15). 저항이란 현실의 조건에 빌붙어 사는 ‘현실 순응’의 삶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에 맞서는 ‘현실 도전’의 삶을 말한다. 이러한 뜻에서 저항이란 ‘도덕스런 삶’이다. 현실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통례의 기준과는 달리, 외솔의 말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고자 하는 살음이 ‘도덕스런’ 사람의 삶이다. 현실의 이해타산에 따라 약삭빠르게 잔 피를 부리는 비속한 삶을 물리치고 그 너머 고고한 삶을 찾아나서는, 깊은 뜻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이 삶이 곧 저항의 삶이다.5) 이러한 삶의 풀이는 여러 곳에 들어 있지만 특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19절에 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최 현배, 1956/2019: 187-192)과, 뒤이어 ‘나라사랑’의 길을 밝히고자 한 책의 맺음말 부분(최 현배, 1958/2012: 531 아래) 볼 것.

그러므로 저항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살음의 삶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저항의 무대는 어디에서나 펼쳐야 할 나날의 삶터이다.

5. 풀어봄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모든 것 뿌리치고 외솔은 이 물음에 다가섰다. 그리고 이 물음과 맞붙어 씨름하고자 했다. 그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교육학문을 전공으로 택한 다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 지니고 있는 내면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고자 한 페스탈로치의 사상을 논문 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조선의 페스탈로찌’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었던 것은6) 외솔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글마다 빼놓지 않고 ‘조선/배달의 페스탈로찌’가 되고자 소망했다는 점을 적어두고 있다. 이는 그에 대한 생각이

강렬했고 어떤 회한이 그의 가슴속에 서려 있었음을 말할 것이다(보기, 최 현배, 1955: 101; 1962: 168; 1964: 120; 1965: 133-134)..

이 물음에 치열하게 달라붙고자 했음을 말한다.

그는 이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한다. 왜인의 압제가 날로 더하여 교육학의 원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최 현배, 1964/2019: 120). 그가 우리 말글 연구로 공부 길을 돌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오래 동안 마음속에 다지며 새겨두었던 ‘한글 생각’에 이끌려 연희 동산에서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과목과 함께 ‘조선어’를 가르쳤던 터라, 이 일은 그만이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사명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다.7)7) 일제 강탈기 밑에서 ‘조선어’가 입신출세의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외솔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말글을 갈고 닦고자 했다. 그의 뜻을 따라 1932년 연희전문학교는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 달리 입학시험에 ‘조선어’를 치르게 했다.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최 현배, 1932/2019: 223).

그런 다음 앞서 두고두고 다듬어온 《우리말본》을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최 현배, 1964/2019: 121). 그러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글 연구도 그가 생각해온 삶에 대한 학문 관심에 잇대어 있었고 그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부 관심이 ‘페스탈로치 되기’에서 ‘겨레 말글 연구’로 나아간 것은 관심의 초점이 바뀌었을 뿐,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관심의 증단을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추구한 교육학문이 높은 삶의 ‘이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들어선 한글 연구는 겨레 모두가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을 캐고 다듬는 것이었고, 그의 말로 겨레 모두가 “생활의 무기”, “이로운 무기”를 만들어 들게 하는 것이었다(1951/2019: 364; 1961/2019: 325-328).

그의 삶과 생각은 모두 이러한 삶에 대한 그의 학문 관심에 잇대어 있다. 거기에서 떼어놓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풀이되지 않는다. 그의 ‘한글 사람 됨’도 마찬가지이다. 온 삶을 바친 그의 한글 연구와 한글 운동이 통례의 언어학 수준을 넘어 남다르게 끈질기고 한결 같았고, 그의 나라사랑과 겨레 사랑이 혼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수준을 넘어 인류의 역사 진보로 나아갔던 것은 그가 파고든 삶에 대한 학문 관심에 터 잡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솔 논의’는 그가 지녀온 ‘삶의

문제 관심'과 떼어놓아서 안 된다. 뿌리에서 잘려나가 물기를 잃고 땅에 이리저리 뒹구는 가지마냥 무의미한 개별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솔 논의'는 모름지기 이 '삶의 문제 관심'에 줄을 대고 있어야 한다.

삶을 갈래짓는 것은 삶에 대한 물음이다(박 영신, 2013). 삶에 대한 가볍고 얇은 물음은 가볍고 얇은 삶을 낳고 무겁고 깊은 물음은 무겁고 깊은 삶을 낳는다. 지식 추구의 삶도 그렇다. 가볍고 얇은 물음으로 공부하는 자는 가볍고 얇은 공부로 나아가고 무겁고 깊은 물음으로 공부하는 자는 무겁고 깊은 공부로 나아간다. 외솔은 가볍고 얇은 물음으로 공부 길로 들어서지 않았고 가볍고 얇은 물음으로 삶을 대하지 않았다.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릴 적에 던졌던 이 물음에서 그는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 '물음의 삶'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무겁고 깊은 밀바탕의 물음을 던지며 살았고 그러한 물음을 던지며 공부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겁고 깊은 물음을 던지며 살라고 일러주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학문 관심'은 이러한 가르침에 잇대어 있다. 살음은 좁은 뜻에서 객관화될 수 없다. 살음은 가치와 함께 한다. 이 관심을 지키는 이는 '무엇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하는 물음을 지나치지 못하고 묻고 또 묻는다. 삶의 문제 관심은 가치를 동반하는 '삶의 학문'을 요구한다. 마디마디로 갈라놓은 오늘날의 협소한 학문의 칸막이 속에 이 학문의 세계를 넣어둘 수 없다. 그것은 더욱 넓고 깊은 관심을 담아내는 학문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 본보기를 외솔의 학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의 마음에 잠긴 학문은 삶의 학문이었다. 역설이지만 이 학문은 그가 남긴 '한글 연구의 빛' 때문에 덮여버렸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두 학문 세계를 동떨어진 따로따로의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해야 하는가? 외솔은 이 삶의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에 답하고자 온 삶을 바친 학인이다. 이 학문 자체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없게 되어 한글 연구 길로 들어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가 삶의 학문 관심에서 갈라져나간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글 연구는 자신이 던진 삶의 물음에 대한 그 나름의 해답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다. 다음 기회에 적어볼 일이다. 그가 풀이하는 대로, 살음을 사는 이 모두가 '삶의 이상'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면, 이 삶은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글’의 뜻과 떨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점만은 여기에서 강조해두고 싶다.

실제로 그의 삶이 이를 증언해준다. 그가 한글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았지만 한글만 가르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쉬지 않고 소리쳐 겨레를 일깨우고자 했다. 일제 강탈기의 겨레를 향하여 외쳤듯이, 그는 해방된 다음 민주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새 시대의 겨레를 향해서도 외쳤다(보기, 최 현배, 1953; 1958; 1962 나). 우리 말글에 대한 수많은 글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고자 하여 수많은 글을 써 퍼내었다. 그는 페스탈로치의 사상을 강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겨레의 페스탈로치로 살았다. 스위스의 교육자가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외솔은 겨레의 스승으로 사람이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생기를 되살리는 ‘자기 갱생’의 가능성을 지녔다고 했다. 그리고 삶의 힘과 뜻을 겨레의 가슴속에 불어넣어주고자 잠시도 쉬지 않고 분투했다. 세상을 떠나기 다섯 해 전이었다. 자신의 삶을 정리라도 하듯이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70을 살면서 학문하였다. 나는 학문을 학문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살음(「사람」과 통한다)을 위하여 하였다. 나는 우리 말글을 연구하였다(최 현배, 1965/2019(1): 136).

‘학문을 위하여’ 학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살음’의 문제 관심에 잇대어 있기 까닭이었다. 그의 한글 연구도 한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음을 위한 연구였다.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열일곱 살 적에 던졌던 그의 물음은 질기고 세졌다. 이 물음은 그를 움직이었고 그의 한뼘을 사로잡았다. 그의 삶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이 살음에 대한 물음이었고, 이 물음을 풀어보고자 한 끈질김이었다. 그는 이 물음과 함께 살았고 이 물음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살음을 살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외침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렁찼으며, 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메아리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겨레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도움 글〉

〈외솔의 글〉

최현배(2012), 《외솔 최현배 전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_____(2019), 《문학·논술·논문 전집》(외솔회 엮고 옮김), 서울: 채륜..

_____(1926), 《朝鮮民族更生의 道》, 서울: 정음사(1971). 또는 《외솔 최현배 전집 3》.

_____(1927ㄱ), “페스탈로찌의 교육 사상”(《현대평론》, 10월 3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3》.

_____(1927ㄴ), “한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갈 것인가”(《조선일보》, 10월 24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3》.

_____(1932),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한글》, 1권 1호/5월 1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2》.

_____(1951), “한글은 겨레 갱생의 근본 길”(《부산일본》, 10월 9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3》.

_____(1953),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 서울: 정음사. 또는 《외솔 최현배 전집 18》.

_____(1955),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사상계》, 6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1》.

_____(1956),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7월 7일), 《문학·논술·논문 전집 1》.

_____(1958), 《나라사랑의 길》, 서울: 정음사. 또는 《외솔 최현배 전집 22》.

_____(1962ㄱ), “페스탈로찌의 교육 사상.” 《나라 건지는 교육》, 서울: 정음사. 또는 《외솔 최현배 전집 24》.

_____(1962ㄴ), 《나라 건지는 교육》, 서울: 정음사. 또는 《외솔 최현배 전집 24》.

_____(1964), “나의 저서를 말한다-한뉘의 사업을 삼아-”(《현대문학》, 9월호), 《문학·논술·논문 전집 1》.

〈그 밖의 글〉

김석득(1994), “외솔 최현배 선생이 걸으신 길,” 《나라사랑》, 89집.

_____(2000), 《외솔 최현배—학문과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_____(2006),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애산학보》, 32집.

남기심(1982), “외솔 최 현배의 애국 사상과 우리말 연구,” 《현상과인식》, 6권 2호.

노치준(1994), “외솔의 사회 사상 연구,” 《현상과인식》, 18권 3호.

박영신(1984), “구조적 맑스주의: 알튀세르에서의 구조와 과정,” 《사회학연구》, 둘째책, 또는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 서울: 민영사, 1992.

_____(1993/1994), “사회 사상이 외솔--겨레 되살리는 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국학연구발표회(1993년 10월 28일/국학연구원), 《東方學志》, 85집(1994년 9월), 또는 박 영신(2002).

_____(1994), “교육에 대한 외솔의 생각,” 《현상과인식》, 18권 3호, 또는 박 영신(2002).

- _____(1995), “외솔 최 현배의 ‘새 나라’ 세우기 생각,” 《韓國史市民講座》, 17집.
- _____(2002), 《겨레 학문의 선구자 외솔과 한결의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2006), “조선어학회가 겪은 ‘수난’ 사건의 역사 사회학,” 《애산학보》, 32집.
- _____(2010ㄱ), “외솔 최 현배의 사상과 나라사랑,” 《나라사랑》, 116집 봄호.
- _____(2010ㄴ), “외솔 최 현배 선생의 교육 철학,” 《나라사랑》, 118집 가을호.
- _____(2012), “실천 지성의 사람 최 현배의 시민 기르기 생각,” 《현상과인식》, 36권 3호.
- _____(2013), “삶의 이론: ‘물음 행위’의 풀이,” <자료집> (한국사회이론학회 창립30주년기념 학술대회/주제: 삶의 이론--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찾아서/2013년 6월 1일(토)/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또는 「사회이론」, 가을/겨울호(통권 44호).
- _____(2014), “외솔의 ‘민주 교육’ 생각”(외솔 탄생 120돌 기념 학술강연회/2014년 10월 16일/세종문화회관 예인홀/재단법인 외솔회). 또는 《나라사랑》, 123집.
- _____(2018), “어떤 맑스인가?” 《현상과인식》, 42권 3호.
- _____(2019), “‘새 나라’, ‘새 사람’--한 백년의 역사사회학 한 토막--”(〈573돌 한글날 기념 제11회 집현전 학술대회/주제: 지난 백 년의 우리 생활·문학과 한글/기조 강연/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10월 10일).
- _____(2020), “겨레의 스승 외솔 기림,” 《한글 새소식》, 571호. (어제, 이제, 올제..역사 새기기-따올 것)
- 이준식(1994), “외솔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현상과인식》, 18권 3호.
- 조성윤(1994), “외솔과 언어 민족주의: 한문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 《현상과인식》, 18권 3호.
- 허웅(1993), 《최 현배》, 서울: 동아일보사.

외솔의 문학



정현기

외솔의 문학

—2020년 4월 28일 <외솔 서거·외솔회 창립 50돌>기림 글—

정현기(전 연세대교수, 문학평론가)

1. 머리말

외솔 최현배(崔鉉培-1894-1970)선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말글의 뛰어난(偉大) 한글학자이다. 그가 가신 지 벌써 50년을 맞는 이 해에 그 큰(偉大) 한글 배움이(學者)의 문학세계(文學世界)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서러운 일이다. 그의 꼼꼼한 저술들은 앞으로 밝혀나가겠지만, 그는 여러 풀의 배움길(學問) 발자국을 낸 분이다. 그는 힘겹게 삶을 버티는 이 민족에게, 기죽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꼭 해내야 할 일로 여겼던 큰 어른이었다. 그는 오늘날처럼 잘게 나눠 따지는 배움길(學問)에서는 국어학자(國語學者)로 문학(文學)애기로 그를 기리는 일은 펍 낫선 얘기가 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은 문학의 길에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고 잘라 말해 둘 생각이다.¹⁾ 그가 조선민족에게 덮쳐 왔던 모진 시련(試鍊)의 그런 때(時代)를 살며, 그는 우리 피붙이(同族)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아 버티는 힘을 주려고 떨쳐나섰던 어른이었다. 그에게 문학이란 무엇일까? 나라말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아야 하던 때 문학(文學)이란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꼼꼼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아야 할 터이다. 문학의 첫째 뜻풀이는 글자로 된 모든 문서(文書)를 문학의 울타리(範疇)안에 넣는 풀이이다. 그러므로 법률문서(法律文書)나, 종교문서(宗教文書), 그리고 시나 소설 비평 따위 모든 문서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탓에, 이 문학의 울타리는 펍 넓게 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점차 글자쓰기가 널리 퍼지면서, 글 쓴 내용에 따라 법률이며 종교와는

1) 2019년도에 <외솔회>에서 가려 뽑아 묶어낸 네 권의 저술(著述)가운데 432쪽에 이르는 첫째 권에 실린 시(詩)와 시조(時調)들이 내뿜는 문학적 향기(文學的香氣)는 당대(當代),이 나라 조선 땅에서 낸, 많은 시인(詩人)이나 소설가(小說家), 수필가(隨筆家) 들의 뛰어난 글 빛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웅장(雄壯)하고도 도져하며 향기롭다.

다른 글쓰기로 문학의 울타리를 정해 꽤 긴 시간 동안, 문학의 좁은 뜻이 정해져 이른바. 시(詩)며 이야기(小說), 따지기(批評) 수필(隨筆) 따위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넓은 뜻의 문학자를 예전 서양에서는 ‘아버지(Vates)라 불렀다고 한다. 먼저 그의 시 한편을 보이기로 한다.

“잡혀온 지 한해 넘어, 처음으로 면회란다.
온갖 想像(상상) 그리면서, 끌리어 나가보니,
아내의 날보고 하는 말, 자식 혼자 어찌나?

이런 일 당할 줄은, 미리부터 짐작이라.
슬픈빛 별로 없이, 웃는 말로 돌아선다.
그렇지, 지악한 세상이라, 큰맘으로 이기세.

커여운 막내 아들, 그림고 그림더니,
집떠난 네해 만에, 面會(면회)하러 찾아왔다.
그 몸이 튼튼 자랐으니, 무엇보다 기쁘다.

車(차)안서 잠 못자고, 온 終日(종일)기다리다,
번개로 만나보고, 훌훌히 돌아선다.
아이야, 몸 조심하여, 머나먼 길 잘가라.

몇 마디 말 못하고, 때 됐다 쫓아낸다.
감방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누웠으니,
그 얼굴 눈에 삼삼하여, 잠 못이뤄 하노라.”

— 「면회」전문 —

1942년부터 외솔 최현배 선생은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4년 동안 함흥 감옥(監獄)에 갇혀 광복이 되던 해에 풀려나왔다. 이때에 그의 동지(同志) 이운재, 한징이 옥중에서 높고 귀한(高貴) 목숨을 잃었다. 위의 시는 바로 그가 겪어낸 왜정시대(倭政時代)의 더럽고도 나쁜 왜놈들의 행패(行悖)를 견뎌내야 하는 당당하고

도 굳센 사내다움의 됬됨을 이야기로 쓴 글이다. 문학(文學)이란 늘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를 밝혀내는 등짐을 짊어진 글쓰기이다. 이런 무겁고도 힘겨운 등짐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뛰어난(偉大) 문인(文人)이라 이른다. 한반도(韓半島) 이 나라 조선(朝鮮)땅은 길고도 오랜 역사(歷史)를 이어오면서 이웃한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侵略)을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왔다. 글쓰기의 꽃이 피고, 나라 말씀의 정신(精神)을 잃지 말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 늘 우리들 등에 얹혀 있었고, 지금도 얹혀있다.

이글은 조선민족(朝鮮民族), 우리가 모두 기리고 그리는(尊敬) 스승으로, 교육학자(教育學者)이며 언어학자(言語學者) — 특히 한글학자, 슬기 맑힘이 = 뜻매김꾼(哲學者)이셨던, 외솔 최현배(崔鉉培)선생이 돌아가신지 50년이 되는 해에 맞춰, 그의 한 살이 배움(學問) 길의 발자취를 따라나서, 그의 문학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려고 하는 뜻으로 쓴다. 잘 알려졌으나, 외솔 선생은 이 나라의 말본 틀을 만들어 우리말글의 틀이 어떻게 짜여있는지를 밝힌 커다란 스승이셨다. 그는 『우리말본』이며 『한글갈』들의 뛰어난 글쓰기(著述)를 통해, 우리말글의 뛰어난 됬됨(品性)이며, 아름다운 결들을 일찌감치 밝혀냄으로써, 엄청나게 뛰어난(偉大) 우리나라 정신(精神)의 기틀을 보여준 분이다.²⁾ 더구나 그가 살아 내었던 헛수는, 이 나라를 이웃한 왜국(倭國 =이제는 일본(日本)이라는 말로 부르는, 우리의 아주 고약한 이웃나라)으로부터 침략(侵略)을 받아, 36여 년 동안 그야말로 참담(慘憺)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던 그 때였다.

1960년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나는, 1930년대로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동안, 느낌이 가장 빠른 젊은(靑年)시절을 보내면서 아픔과 슬픔을 견뎌낸, 어른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뉘가를 배웠다. 당시에 생각나는 국어국문학과 스승들은 최현배, 김윤경, 권오돈, 유창돈, 박창해, 박영준, 양주동, 박두진, 전규태 등 쟁쟁(鏗鏘)한 학자들이었고, 이웃한 철학과에는 정석해, 최석규, 김형석 등의

2) 외솔 선생의 저술(著述)들은 본문에 적은 두 권 말고, 『조선민족경쟁의 도』(1926년) / 『중등조선말본』(1936년) / 『시골말 개기 잡책』(1936년) / 『중등조선어법』(1936년) / 『한글의 바른 길』(1937년) / 『글자의 혁명』(1947년) / 『중등말본』(초급, 1948년) / 『참된 해방(배달겨레의 제풀어놓기)』(원고, 1950년) /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19951년) /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1953년) / 『한글의 투쟁』(1954년) / 『중등말본』(I·II·III, 1956년) / 『나라사랑의 길』(1958년) / 『한글바로적기 공부』(1961년) / 『나라 건지는 교육』(1963년) / 『한글 가로글씨 독본』(1963년) / 『배달말과 한글의 승리』(1966년) / 『교회 기념 논문집』(1968년) / 『한글만 쓰기의 주장』(유고, 1970년)의 저술들이 있다.(1980년판 『우리말본』 뒷장에 쓰여 있는 글쓰기 발자취)

밝맑은 스승들이 삶 길의 아득한 참됨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 스승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에 앞장서 징역(懲役)살이를 하신 어른들도 꽤 많았다. 외솔 최현배 선생을 비롯하여, 포명(抱溟) 권오돈(權五惇)³⁾, 김윤경 같은 어른들은 징역(懲役)살이를 의례 당신들이 겪어내야 할일(使命)로 여기는 분들 같았다. 양주동 교수의 그 유명한 강의 가운데 그의 대표저술로 알려진 『고가연구(古歌研究)』를 배우며, 들은 외솔 최현배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적어두고 싶다. 무애(無涯) 양주동 선생은 스스로 천재임을 늘 자랑스럽게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였다. 경성제국대학교에 와 날치던 왜국 학자 ‘오구라신베이(小倉進平)’의 이 나라 신라 노랫말을 연구하여 그답게 풀이해 놓아 조선 민족을 기죽였는데, 거기 맞선 용력(勇力)을 써 발표한 『고가연구(古歌研究)』로 이 소창진평의 향가주석(鄕歌註釋) 학설(學說)을 물리쳤노라고 자랑스레 강의하곤 하였는데, 틈틈이 자기 자랑하는 말씀이 참 맛깔스러웠다. 그 제 자랑 맛속에 외솔 최현배 선생이 나온다. 당신의 이 저술 자랑을 침을 튀겨가며 말하시다가 문득, 징역생활에서 풀려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이 당신(梁柱東)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어허 양 교수! 수고하셨소! 내가 감옥(監獄)⁴⁾에서 당신의 저술 이 『고가연구』를 다 읽었소! 참 큰 일 하셨오이다.’하며 어깨를 으쓱거리 자랑하였는데, 그때 그는 외솔 선생을 무척 존경하고 뛰어난 학자임을 꿰뚫어 알고 있던 분이였다. 우리는 느낌이 빠르고 생각이 깊은 젊은이가 자기를 덮어씌우고 있는 무섭고 두려우며 살벌(殺伐)한 자기환경(自己環境)을 뛰어넘어서야 할, 짐이 실려 있음을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몸짓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는, 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길은 늘 스스로 가고자 하는 몇 날의 길로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사람 파스칼이었다? 그의 『생각들(Pensées)』이라는 심심풀이 얘기들⁵⁾을 읽으며 생각 못짐에 갈무리해둔 기억(記憶)이 있다.

그렇다면 나쁜 놈들이 판치는 세계인 왜정악행(倭政惡行)을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길은 어느 길이 한국 사람에게 맞는 것일까? 첫째는 그 스스로 그 나쁜 세계에 들어가 나쁜 일들을 그냥 저지르며 제 이익을 얻어내는 길이다. 너무 더러워서 같은 피

3) 포명 권오돈 교수는 당시 우리에게 한문을 가르쳤는데, 그 때는 그가 충주에서 비밀결사대 <多勿團> 단원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가르친 교재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환희기(幻戲技)>였다.

4) 외솔 선생은 1945년 8월 5일 조선광복을 함흥 감옥(監獄)에서 맞이하였다. 아마 그즈음 양주동 선생을 만났을 터다.

5) 그의 관심은 그들 서양 패들이 겪어낸,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위, 히브리즘 전통과 이어진 얘기로 모아져 있어 우리에게는 펍 시시한 따침처럼 보였지만!

붙이(同族)들에게 돌팔매를 맞거나,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그 길로 나서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을 수 있다. 이승만이네 이광수, 서정주, 장덕수, 김활란 등이 그 길로 나선 이들인데 이들이 나라가 광복이 되고 난 뒤끝의 사람들 눈길이 딱 안 좋아, 아예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삶의 똥통에 빠지는 길이다.

II. 외솔 최현배의 시대

1. 나라 빼앗김과 나라 되찾기

최현배 그는 왜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때에 가장 젊은 시절을 보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농학자 유달영 선생이 말해주었듯 ‘그것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울먹였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며 지내고 있는 중이다.

어떤 글이든지, 옛 사람들의 삶과 그 한 일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기리는 옛사람들 가운데 외솔 최현배(崔鉉培)선생이 계시다. 그는 1894년에 태어나 1970년까지 살다가 떠나가신 어른이다. 1894년이면 그 해가 왜국(倭國)이 중국(당시는 淸나라)에게 쳐들어와 일으켜, 이른바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있었던 해였다.⁶⁾ 그 당시 아시아지역은 뒤숭숭한 싸움판이 되어 그야말로 우리들 삶 길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던 때였다.⁷⁾ 그런 해에 이 어른 외솔 최현배는 태어났다. 그 때 이 나라는 동

6) 이 <청일전쟁>을 시대배경으로 이야기에 깔면서 이 나라 최초의 신소설(新小說)이 나왔다고 주장한 왜국밀정 작가(倭國密偵作家) 이인직(李仁植)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는 『혈의 누』라는 소설을 써서 1960년대 이 나라 문학계(文學界)에 크게 떠들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바로 왜국(倭國)의 천박한 발쇠꾼(密偵)이었을 뿐이라고 내 옛 평론집에 적어놓았다.

7)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서양(西洋)은 제국주의 책략(策畧)에 따라 무기장사치(武器商)들의 부추김을 등에 지고, 세계 각국에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抑壓)하는 더럽고도 끔찍한 범죄(犯罪)를 저질러 왔다. 거기 왜국이 서양(西洋) 제국주의 책략(策畧)을 본받아 아시아 여러 나라에 그 더러운 마수(魔手)를 뻗어, 이 나라 한반도에 검은 그림자를 질게 드리우게 되었던 일(事實)은, 그때한반도(韓半島), 이 나라 사람들이 짙어진 끔찍한 가시밭길의 겪을 길이였다. 이를 참고할만한 전거(典據)들은 아주 많지만, 서양사람 더글러스 러미스가 쓴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학당(東學黨) 전봉준(全琫準)이 고부(古阜)에서 일어나 지금 전라남도 전주(全州)를 함락하였고, 이른바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일어나 나라가 온통 요동치는 흔들림으로 꿈틀대던 때였다. 성환(成歡)에서는 청나라와 왜국(倭國) 군사(軍士)들이 맞붙어 겨룬 싸움질에 젊은이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판으로 왈가닥왈가닥하던 그런 때였다.

그가 살아내었던 때는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여, 조선 사람 누구에게나 앞길이 통 보이지 않았다. 어려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들어 세상 돌아가는 여러 움직임을 꿰뚫어볼 나이가 될 때, 그리고 그가 자아 스스로를 위해 또 그 이웃이며 나라를 위해, 힘차게 일할 나이가 들어서도 나라꼴은 어둠 그것일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꿰뚫어 읽었다. 왜국이 양키제국의 등밀이⁸⁾를 믿고 이 나라를 쳐들어와, 36여 년 동안 을 그들은, 식민지(植民地)사람들로 조선사람 우리들을 억누르며 인권(人權)을 짓밟았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그 나라를 짓밟는 차례 가운데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멀리 쫓아내는 물리적(物理的)인 일 말고, 그들의 마음 길(精神)을 짓밟아 무너뜨리는 일이야말로 부라퀴(惡黨)들이 자주 저지르는 나쁜 짓(惡行)이다. 그 나라 핏줄들의 길이며, 자기됨을 짓밟는 일 가운데 그들의 날마다 쓰는 말이나 글을 못 쓰게 하고 엉뚱한 남의 나라 말글로 쓰며 살도록 강요한다는 것! 그야말로 끔찍한 나쁜 짓이 아니었던가? 이런 일이 그가 살아내었던 왜정시대(倭政時代)가 이 땅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은 살아내며, 그가 해야 할 일⁹⁾을 찾아 나섰다. 그 나라 찾는 길 가운데는 여러 갈래가 있다. 총칼을 잡아 직접 적들과 맞서 싸우는 길, 그 싸움 길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저들 적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을 지키는 일, 그들은 우리의 정신까지 짓밟아 빼앗아 없애려고 한

(녹색평론사; 2002)한 권만 내세우기(紹介)로 한다.

8) 1915년은 양키나라 국무장관 태프트와 왜국 외무부대신 가츠라가 맺은 <가츠라-태프트 밀약>은 두 강대 나라가 남의 나라를 훔쳐 빼앗는 일을 손잡아 문서로 남긴 해였다. 놀랍게도 이 밀약은 지금도 살아 꿈틀대는 그들 사이의 눈짓주고 받기로 살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하고 그들에게 그 잘못된 국가범죄 행악(行惡)을 따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9)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뒤틀어져 있을 때 젊은이들은 그것을 벗어날 길을 찾아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생각하였을 테다. 배움이나? 죽더라도 맞서 싸워야 하느냐? 싸울 힘을 기르는 게 먼저냐? 저들에게 무릎 꿇어 종살이로 가는 건 어떨까? 따위 당대 젊은이들의 생각 길은 아주 벅센 짐틀에 묶여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10) 당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나선 한국 사람들의 믿음 틀(宗教)은 거의 다 민족종교인 대종교(大倥敎)였다. 배달민족의 조상신(祖上神)을 믿는다는 것은 당대 앞 끈들에게는 마땅한 믿음 길이었었던 것이다. 내가 나인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머니이고 그들의 아버머니로 여쩔 수없이 그들의 피를 물려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며 우리의 우리됨을 이루는 됴됨이다.

다. 우리들 정신을 밝히고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 틀(宗教)¹⁰나 말글, 이름, 오래 지켜온 버릇(文化), 그런 것들이 곧 우리의 우리 됨을 엮어나가는 뚜렷한 받침틀이다. 그 가운데 나라말씀(民族言語)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큰일임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그가 찾아 나선 길이 나라말씀 되살리기이며, 말글을 바르고 고르게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는 그 길로 곧바로 나섰다. 그것은 민족(民族)이 빠져있던 어둠으로부터 빛을 밝히는 뚜렷한 할 일이었다.

말글로 된 모든 징표(徵表)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 나라 핏줄기들의 힘줄이며, 자기 삶의 올바른 뼈대가 아닌가? 적들은 그것을 없애버려(抹殺) 아무것도 모르는(無知蒙昧) 바보 천치로 만들어야 제대로 말 잘 듣는 종들이 된다. 그것이 그들 왜국 놈들이 꿈꾼 헛된 마음 발길질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배달민족을 너무 함부로 봤기 때문일 터이다. 왜국은 타고난(先天的) 못난 씨알(種族)이라는 열등감(劣等感)에 시달리는 나라라는 게 나의 믿음이다.¹¹)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들은 왜 자주 이 나라에 쳐들어와 이 나라 재물(財物)이며 사람들, 앓 틀, 문화(文化) 모든 것을 훔쳐가거나 빼앗으려고 양탈을 자주 부러왔는가?¹²) 생각할수록 왜국(倭國)¹³은 우리와 가까이 사는 아주 나쁜 이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패(行悖)에 맞서는 길은 그들이 지닌 힘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맞닿아 있다. 어디서 그들이 저런 마음과 힘쓰기를 길러, 우리를 억압(抑壓)하고 내리 누르는가? 조선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원인이며 힘의 뿌리를 알기 위해 괴나리봇짐을 짊어 짊어지고 나라 안팎으로 나라 되찾는 길을 찾아 나섰다. 외솔 최현배 선생도 이 길을 떠나 왜국에 가서 그들의 배움이 어떤 길로 나 있는지를 배웠다. 그는 거기서 뚜렷한 어떤 현상(現象)을 꿰뚫어 알았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서양 여러

-
- 11) 스스로 늘 자기를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짙은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 너와 나 그는 서로 같은 이시(存在)이며 높낮이조차 따져서는 안 되는 그런 고귀한 이시(存在)다. 그런데도 호서(湖西)쪽 사람들이 늘 그들 스스로 일등 사람이라는 착각(錯覺)을 만들어 부러왔고 우리와 이웃한 왜국도 그것을 좇아 스스로 앞선 나라(先進國)라는 헛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한 피붙이들인 탓이다.
 - 12) 1592년도 임진년에 이 나라를 쳐들어와 분탕질을 친 임진왜란이며 수시로 이 나라에 들어와 문물을 훔쳐낸 역사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잘 살펴보면 그 일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 13) 왜국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일본(日本)이라는 나라이름으로 세상에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부터 불러온 그 핏줄기는 왜족(倭族)이었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대로 나는 그들 나라 이름을 그대로 불러 쓸 생각이다. 나는 왜정기대에 왜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로부터 문학을 배웠고 그들은 일본을 부를 때 꼭 왜국이라 불렀다. 특히 무에 양주동 선생의 말투가 그랬다고 솟음(記憶) 한다.

나라가 저마다 서둘러 제국주의책략(帝國主義策略)에 앞장 서 나섰던 때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19세기에 이른바 세계 제 1-2차 전쟁이 치러진 것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남의 나라를 제 나라로 삼으려는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 또는 제국주의정책(帝國主義政策), 쉽게 우리에게 다가선 고운 이름으로 불려온 자본주의정책(資本主義政策)의 필연적(必然的)인 결과(結果)였다. 제 힘을 길러 남을 억누르고, 남들이 지닌 것을 빼앗아 챙기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쉽고도 올바른 길이라는 엉뚱하고도 못된 생각의 길로 나아간 것이 당대(當代) 서양(西洋)의 극악(極惡)한 나라꾸미기였다.¹⁴⁾ 그것을 조선 청년들이 깨우쳐 알게 된 것 또한 왜국(倭國)일본(日本)의 학문(學問)이라는 멀쩡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으며 배움이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메국(메국=America에서 멧자를 따다가 붙인 아메리카)에 사는 에드워드 W. 사이드가 1987년에 써서 발표(發表)한 두툼한 책 『오리엔탈리즘』 한 권이 한국 앓꾼(知識人)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낸 책이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김영사 판, 2001년)이다. 그 책 앞장 제목(題目)아래쪽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미국(=美國?-메국)의 야만성(野蠻性)과 서구사회의 허구, 지식인의 이중성 비판’이라고 써놓았다. 프랑스가 저질러 왔던 제국주의 정책을 잉글랜드(英國)가 본받아 한바탕 세계(世界)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 빼앗고 죽이며 가진 나쁜 짓(惡行)을 저지르고 나서¹⁵⁾, 이제는 메국이 그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사람의 눈은 누구나 다 볼 줄 알고, 또 잘 잘못을 가려낼 줄 안다. 서양의 저런 나쁜 짓을 일찌감치 본받아 배워 그것을 그대로 옮겨 한 나라가 왜국(倭國) 일본(日本)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 틀어야말로 나쁜 생각(帝國主義)이다. 서양(西洋)은 철학정신(哲學精神)을 잃는 지 오랜 야만(野蠻)의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외

-
- 14) 프랑스가 일찍이 아라비아 쪽으로 쳐들어가 아랍인들의 문화재(文化財)와 재물을 빼앗아, 제 나라를 풍족(豐足)한 문화대국(文化大國)이라고 세상에 퍼뜨린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찬다. 프랑스 수도(首都) 파리 루브르 박물관(博物館)에 놓여 있는 여러 나라 문화재(文化財)를 보면 정말 코미디 대본을 보는 듯하다. 모두다 이집트 유물이며 그리스 그리고 각 나라 유물들이 거기 버젓이 진열(陳列)되어 있다. 그곳 콩코드 광장(廣場)에 뾰족(兀然)하게 서 있는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신전(神殿) 앞에 세워있던 것이다. 그것이 어째서 거기 와 서있는가? 나폴레옹 정권(政權)때 그것을 훔쳐다 거기 세워놓은 것이 아닐까? 나폴레옹 시대(時代)에 이집트며 그리스에 쳐들어간, 나폴레옹 군대가 어떻게 남의 나라 문화재(文化財)를 훔쳐갔는지는, 1998년 여름기간동안 총 12회에 걸쳐 <르몽드>지에 연재(連載)하였다가 출간(出刊)한 『나폴레옹의 학자들』이라는 글이, 프랑스 문학을 공부한 이상빈 박사에 의해 우리말로 옮겨져, 2003년도 4월에 두툼한 4-6배판 형 410쪽 책으로 출간(出刊)되었다. 저들의 뻔뻔스런 나쁜 짓들이 눈에 선하다.
- 15) 1839년부터 1860년에 끝난 잉글랜드와 중국(中國)이 벌인 아편전쟁(阿片戰爭)얘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대영제국(大英帝國)이라 일컬으며, 남의 나라에 마약(麻藥)을 팔아먹은 더럽고 뻔뻔스런 나라가 영국(英國)이었다.

술 최현배 선생은 젊은 날을 보내며 나라 되찾는 일을 우리 말글 지키기와 그것을 갈고 닦는 일에 나서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로 앞장 서 나섰다.

2. 나라 되찾는 일의 갈래

왜국일본(倭國日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겨 나의 나됨(自己同一性=Identity) 길이 송두리 채 막히고 어디를 가도 왜놈들의 꺼짱대는 발걸음과 활개 짓에 주눅이 들지 않은 한국 사람은 없었을 테다. 일본 왜놈(日本倭者)들의 으스대는 몸맘짓을 눈앞에서 없애는 길은 대체로 서너 갈래로 나뉘어 놓였다. 첫째는 총칼을 들고 저놈들은 죽여 없애는 길이다. 의사(義士) 안중근(安重根)이 총칼을 들고 왜놈 부라퀴(惡黨) 두목(頭目)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총 쏘 죽이는 일이 그 때 정말 일어났다.¹⁶⁾ 둘째는 아직 이 나라가 힘이 왜국(倭國)에 못 미치니, 힘을 기르는 길이 있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鎬)같은 지사(志士)가 내세운 무실역행(務實力行)의 길이 그것이다. 자아(自我) 나의 나됨의 길을 만드는 것은 늘 너와 나 또 그가 마주 서거나 살면서, 밀고 당기며 스스로의 비싼(尊嚴)한 값을 지키려는 뜻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이 지구역사(地球歷史)는 서쪽에 살던 사람들¹⁷⁾의 못나고도 못된 꿈꿨이 속셈들로 펍 더럽혀진 세월(歲月)이었다. 세계 1,2차 싸움(戰爭)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너무 시시하고도 더러운 꿈틀댐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남의 나라 못된 놈들에게 위협(威脅)을 당하였던 겪음을 지닌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 되찾는 일 외의 것은, 어쩌면 뒷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10년 이래 조선 반도에 오랫동안 등지를 틀고 살아온 사람들 마음은 온통 나라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을 것이다. 이 때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은 떨쳐 일어나 제 나름껏 해낼 수 있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섰다.

16) 1926년 10월 24일 9시30분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향해 세발 총을 쏘아, 그 자리(卽席)에서 죽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런 일은, 그 어른 말고도, 아주 많은 조선 젊은이들에 의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이때를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는 저절로 가슴이 뛰고 자랑스러운 우리 피붙이(同族)들의 옳은 일이 되새겨지곤 한다.

17) 일찌감치 프랑코 족들이 아라비아에 쳐들어가 살육(殺戮)을 저질렀던 일 하며, 중국(中國)에 들어가 아편전쟁(阿片戰爭)을 일으켰던 영국하며, 현세(現世)미국이 이란이며 이란 땅에 들어가 별의별 싸움 걸이 수작들을 벌이는 꼴 새를 꼼꼼하게 지켜보면 저들 서양 쪽에 사는 패들이 얼마나 야만족(野蠻族)들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다.

그 가운데 빼앗기기 십상인 이 나라 말글을 지키고 잃어가는 말글을 찾아 나선 이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뜻 깊은 어른이 있었으니 그가 곧 한힌샘 주시경(周時經)선생이었다. 주시경 선생은 전국 방방곡곡 보따리에 한글관련 가르칠 문서들을 짊어지고 젊은이들 만나는 족족 한글을 가르친 커다란 스승이었다. 외솔 최현배 선생도 그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실천(實踐)하려는 뜻을 키웠다. 그 주시경 선생을 기리는 시 한편이 우리 눈을 시리게 한다.

맑은 공기 울리면서 배달말이 자라났네
사천년 묵은 밭을 처음으로 이룩하니
스승의 수고로움 얼마나 크었으리.

임의 팽이 간곳마다 묻친 진리 드러나니
배우는 젊은 학도 겨레 얼을 깨쳤도다
험악한 풍랑에도 예던 길 지키었네.

한배나라 도로 찾아 만년대계 마련하니
겨레의 한글문화 앞길이 양양하다
스승의 불인 햇불 영구히 타오리라.

- 「주시경 스승 추모」가 전문 -

2019년도부터 경기도 성남시청이 주관하여 일을 시작한 것이 <독립운동가 웹툰 작업>이었다. 거의 1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한 살이를 일일이 찾아내어 만화 이야기로 그려 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일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두 손 들어 손뼉을 힘차게 칠 일이다. 2019년도 1차분의 <독립운동가>들 웹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2차 웹툰 작업에 들어가 지금도 그 일에 많은 그림애기꾼(漫畵家)들이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문화예술가(文化藝術家)들 이야기가 펼쳐질 2차 작업 속에 외솔 최현배 선생이 들어가 있다. 나라를 되찾아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외침(主張)을 힘차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외솔 선생이 들어간 것은 마땅한 결정(決定)이었다고 생각한다. 독

립 운동가들에 관한 이런 기림 일은 뒤늦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나라 열(精神)을 되찾는 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언가 나라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느낌이다. 위에 보인 주시경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기림 시는 바로 외솔 최현배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환하게 밝힐 만한 눈 시린 시이다.

문학(文學)글쓰기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짧되 깊은 뜻을 담는 시(詩)를 비롯하여 사람살이의 겪은 일을 살살이 이야기하여 풀어 보이는 소설(小說)과 담담하게 겪은 바를 적어보이는 수필(隨筆)이나 수상(隨想)따위며, 당대(當代)에 흘러가는 글쓰기들에 대한 따져 값을 매기는 비평(批評-評論)글들로 꽤 여러 갈래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文學作品)들이 노리고 바라는 글쓰기의 이유며 목적(目的)또한 시대(時代)에 따라 꽤 다르게 나타난다. 그가 살았던 때가 꽤 힘겹고 괴로운 억압(抑壓)이나 갇힌 판(狀態)에 놓였다면 틀림없이 그런 억눌림이나 갇힘 꼴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바람이 가장 굵고 큰 흐름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렇게 세상에다가 자기가 갇혔고 또 억눌려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해악(害惡)이며, 부조리(不條理)를 사람들의 밝은 눈앞에 펼쳐 보임으로써, 그 잘못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마음 쓰기가 직접적(直接的)이거나 비유(比喩)로 드러내는 글쓰기가 곧 문학의 길이다. 외솔 선생의 문학 글쓰기는 거의 모두 다 이런 당대(當代) 사회비판(社會批判)으로 열려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 누구를 또는 어떤 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거기 꼭 그러해야 할 일이 의도적으로 가로막혀 빠져 있거나, 아예 그 잘못된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을 가리며 나쁜 일을 저지른다는 일, 뒤꼍에 마땅히 그러해야 할 아주 귀중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찾아내는 일이다. 그게 무엇인가? 가령 왜정시대에 거들먹거리며 조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잘난 체 하던 왜놈들의 걸치장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잘못이 들어 있다. 36 여 년 동안 왜놈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저지른 일들이 잘 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리왔던 모든 것을 가로채어 제 것이라고 우기며, 자들의 하는 일이야말로 잘하는 일이라고 뻔대는 짓들을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할 것인가? 모든 이시(存在)는 하늘 아래 누구에게도 묶이거나 시킴을 당해야 할 이가 없다. 누가 누구보다 높으며 낮은가? 제국주의(帝國主義=植民主義=資本主義)란 곧 이런 나쁜 일(惡行)의 버릇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온 사람살이(人類)의 커다란 나쁜 짓(罪惡)으로 지금도 그 거센 바람은 여

기저기 불고 있다. 옛 때나 이때나 그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 그것을 저지른 사람 패들을 나쁜 이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굳세게 나의 나뒀을 만들어 가는 이가, 곧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왜놈들이 이 나라에 와 설치던 때 1938년(단기 4271년)에 왜놈들은 조선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말글 쓰기를 가로막으면서, 왜 말만 쓰기를 억지로 시킴으로써 수천 년 써오던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¹⁸⁾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남을 내게 묶어 종살이로 한 삶을 끝내기를 바라는 이는 없다.

Ⅲ. 한글과 독립정신

1446년도에 널리 사람들에게 퍼뜨려 알려진 우리나라 글말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조선 사람임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훈민정음(訓民正音)> 그 머리말에 뚜렷하게 이미 적혀 내려와 있다. 당시에 쓰이던 글 그대로를 보이는 대로 풀어보자면 먼저 이 글자들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말글은 중국 말글로 써왔던 것이어서, 한자 투로 세로쓰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 세로쓰기 원리를 바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 왜국으로부터 광복이 되고 난 다음 해 1946년 7월에 <한글가로쓰기 연구회>가 창립되어, 최현배 선생을 회장으로 하는 이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1980년대쯤에 와서야 이것이 가로쓰기로 바뀌었다.¹⁹⁾

18) 바로 이런 어둠의 한 복판에서 한헌샘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글 조선어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런 스승을 기리면서 그가 간 길을 걷기 시작하여, 이 나라의 말글의 빛을 간직하는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19) 이 한글 가로풀어쓰기 주장은 실로 오랫동안 그 원리만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 주장에 따라 저절로 세로쓰기 한글은 가로쓰기로 옮겨왔던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이 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기로 한다.

선생이 태어나 그 험한 삶 길을 살아내어야 하였다. 그때를 살아낸 우리들 핏줄의 많은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어찌 지금의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최현배 선생 같은 이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겪어낸 이야기를 듣고 보며 우리들의 오늘이 그들의 엄청난 고통과 전담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구나 하는 고마움과 느껴움만 있을 뿐이다. 이 차례에 내 놓은 그의 글 모음 묶음들 가운데 첫째 권 『문학·논술·논문』전집 I 첫째 매 시(詩)와 시조(時調) 스물네 편 가운데 작가가 내 보인 문학적 눈길은 당대역사(當代歷史)의 끔찍(嚴酷)한 남의 나라 나쁜 짓거리에 대한 저항(抵抗)이 굳건하게 담겨 있어 읽는 일로 하여금 주먹을 쥐게 한다. 「나라사랑」이며 「한글노래」, 「한힌샘 스승님을 생각함」, 「면회」, 「함흥 형무소」들 시며 시조는 그 때에 겪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왜정치하(倭政治下)의 못된 나쁜 짓(惡行)에 마주서서 겪으며 바라본 겪음 얘기들이다. 놀랍게도 이 얘기들 속에서 외솔 선생이 담아놓은 속뜻은 오직 우리 피붙이들이 갖춰야 할 독립이며, 그 독립의 길로 나아가면서 겪어내야 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거기 맞선 어른들에 대한 치열한 그리움과 기립이 있다. 그의 한 살이 속에서 굵직하게 마음을 굳혀 쏟아낸 말글(文學)은 오직 ‘나의 나됨’, 그것이 넓혀진 ‘우리의 우리 됨’이라는 열에 이어져 있다.

그가 써 내놓은 시와 시조가 마음속에 흐르는 느낌을 적어놓은 것이라면, 짧은 산문(散文)으로 쓰여 보이는 이 글들은 그야말로 활화산이 폭발할 듯한 우리 피붙이(民族)의 외침이며 펠러이는 손짓에 피붙이들을 끌어 모으는 애타는 열변(熱辯)으로 들끓는다. 아하! 1960년 4월 19일 그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4월 혁명(革命)의 들끓는 열기로 가득 차 꿈틀거릴 때 내 선배들이 외솔 최현배를 이어 부르며, 앞에 나서 한 말씀 하시라고 외치던 정경(情景)의 밑받침이, 바로 저런 스승의 열정과 민족 사랑이 있구나, 하고 다시 깨닫게 된다. 모든 글쓰기란 거의 다 그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의 가장 큼직한 줄기가 곧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바람결에 놓여 있는가? 남들이 이 집에 들어와 제집이라 날뛰던 그런 앞에서 길고도 질기게 이 어른 최현배 선생은 살아 내었다. 이 어른이 발표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산문은 거의 다 이 민족 피붙이들이 배앗긴 것들 되찾으려는 피를 토하는 듯한 그리움(熱辯)으로 들끓는 철학사상(哲學思想) 곧 독립정신(獨立精神)이 들어 있다.

그의 산문(散文)으로 발표된 글들의 갈래는 크게 보아 첫째 <한글을 살리는 길>로

서, 「한글전용에 과연 무슨 부작용이 있나」, 「周(주)스승님을 생각함」 등 스무 편의 글이 있고, 둘째는 <민족교육론(民族教育論)>으로 「기질론」, 「한글은 겨레 정신의 결정」 등 서른 편이며, 셋째가 우리말글을 갈고 닦는 일의 꼼꼼한 길 찾기 얘기로 모두 13편이다. 하나하나 글들 모두가 들끓는 불과 같은 치열한 정신이 환하게 열린 씩씩하고도 다정하며 아름다운 마음 길로 열려 있다. 글은 열어 놓는 글과 닫아놓은 글이 있다. 누군가 그걸 볼까 두려워 숨죽인 채 일부러 어려운 한자말로 엮어 빙빙 돌려 쓴 글이 있다. 나라가 엄청난 억눌림과 악행들로 뒤 덮여 있던 때에 바르고 옳은 말을 쓰려면, 그런 억압의 눈길을 피할 말길을 연다. 꽤 많은 왜정시대(倭政時代) 학자(學者)들의 글이 이런 길로 나아간 것이 가끔씩 보인다.²¹⁾

모든 글쓰기란 어쩌면 꾸며 만들(創造)이다. 외솔 선생이 살아생전에 꾸며 만든 것은 아주 펍 크고도 재미있으며, 씩씩한 말길 열기였다고 나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그 가운데 한자말로 된 이 나라 곳곳마다 퍼져 있는 이름들을 토박이말로 바꿔 놓으려는 맘쓰기로 펍 애달프면서도 꾀꾀해서 늘 부럽고도 자랑스러운 스승으로 기려왔다. 이 어른의 열렬한 제자였던 소설가 만우(晩牛) 박영준(朴榮濬)은 바로 나의 스승이다. 그는 늘 외솔 스승님을 그야말로 엄청나게도 우러러보았다. 그 어른의 제자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였다. 이 어른이 쓴 소설 가운데 이른바 인칭대명사(人稱代名詞)가운데 삼인칭(그, 그녀, 피녀 따위)을 놓고 광복 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 있었고 외솔 선생이 내세운 3인칭 대명사를 ‘그미’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박영준 선생과 그의 몇몇 제자들은 바로 그 인칭(人稱)을 그렇게 ‘그미’로 써왔다. 외솔 선생이 내세운 ‘미’에는 여러 뜻매김이 들어 있었다.²²⁾ 국어학자이며 역사학자, 교육학자였던 외솔 최현배 선생이 글자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든 말로 글로 스스로 깨우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과 나라살림이 튼튼하고도 씩씩하게 살찌워지기를 그는 빌고 또 빌며 한 살이를 툫아왔다. 글쓰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은 그의 생각 내세움에는 주로 우리 민족이 지닌 자랑스런 것들이 남들에게 짓밟혀 없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았다. 거기 문학에 속할

21) 영국제국주의 억압 속에 놓였던 아일랜드 문인 제임스 조이스의 글들이 엄청나게 어려워, 깃동 이게 무슨 말길인지?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론으로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창한 얘기들로 그의 문학세계를 싸매 놓았지만, 나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 말길 문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대한 치열한 검열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았다. 그 생각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다.

22) 박영준 선생의 문학제자였던 『머나먼 송바강』의 작가 박영한(朴榮漢), 그리고 『불새』의 작가 유홍종의 작품들 속에는 바로 이 삼인칭 여성 대명사를 ‘그미’로 적어 왔다고 기억한다.

수필이며 시 시조 산문 등 여러 방향에서 선생의 크고 따뜻한 마음과 뜻을 담았다.

V. 맺는 말

나이가 좀 드신 어른들께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외솔 최현배 선생의 글 한 편을 기억할 것이다. 「'사주오'두부장수」라는 짤막한 글인데, 나는 지금까지도 사람마음을 확 잡아 끌던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모든 글에는 글맛이 있다. 대체로 그 글맛은 그 글을 쓴 이의 진정성이 얼마나 녹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 글을 쓰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愛情)이 담겨 있느냐에, 그 글맛이 달려있다는 말이다. 이 글에 두부를 파는 이의 도부 치며 지르는 소리인 '두부 사주오오!'가 사람들 마음을 잡아채는 끌림이 있다. 아침마다 마을 골목을 돌아다니며 음식재료를 파는 이들은 당시에 참 여럿이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 장만 하는 아주머니들 반찬걱정을 덜어줄, 두부장수들이 소리를 외치며, 뜨끈한 두부모판을 짊어지고 다니곤 하였다. 거기에 무 배추 파를 파는 이들도 있었는가? 밤이면 찹쌀떡에 메밀묵 장사들이 골목을 돌며,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난, 이들의 출출해진 뱃구레를 자극하는 외침소리가 자주 들렸다. 당시 서울 골목에 흘러 다니던 사람 사는 맛이였다. 찹쌀떡에 메밀묵! 그것이 당시 서울의 골목골목마다 웅성거리며 삶을 저울질하던 풍경이였다.

그런데 이 두부장수만 특별하게도 저렇게 외쳤던 것이다. 두부를 사달라고 말하는 이의 외침은 듣는 이들의 마음자리를 푹 꿈틀거리게 할 뭔가가 있었다. 오죽하면 두부를 사달라고 외칠까? '두부 사시오!'가 아니라 '사 달라!'다. 지금 생각해도 이 말투는 사람마음을 확 잡아 끈다. 이 두부 장수 외치는 소리를 듣는 가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두부는 사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다가섰다고 외솔 선생은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침마다 들리던 저 두부 사 달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외솔 선생 가족이 서대문 쪽 어디에 살았던 그 때 날마다 외치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끊겨 궁금해 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마음 다스리는 얘기도 푹 맛깔스럽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독립문 밖 푸성귀 장에

서 배추를 사려고 하다가, 문득 낮 익은 사람을 보고 와서 가족끼리 나눈 이야기며 좀 뒤에 외솔 선생 아내가 직접 '관동'에서 그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에 왜 외상값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는 말 나눔까지 전하면서, 그러나 그가 오지 않아 아직도 그 외상값은 못 갚았노라는 게 끝이다. 이 이야기는 실은 직접 읽어봐야 제 맛이 난다. 표현이 아주 맛깔스럽고 그야말로 이야기 품이 푸근하며 정겹다.

이제 이 글의 끝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앞에서 밝혔듯이 외솔 최현배 선생 하면 의례히 위대한 국어학자이며 독립운동가에 교육자, 열렬한 민족주의자라는 자리매김에 어김이 없다. 그런데 다시 그를 보면 문학작품 쓰기에도 그는 한 줄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어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살았던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 이웃나라인 왜국(倭國)은 옛날과 다른없는 그 나라로, 우리나라를 걸터드는 눈짓이 똑같다. 외솔 선생이 평생(平生)을 두고 나라의 혼과 자존(自尊=自存)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에 큰 발자취를 남겨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늘 이 어른을 기리고 그가 살아온 마음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랑거리 하나라도 없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슬픈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이 어른 외솔 선생은 커다란 자랑거리의 한 어른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늘 그를 기려 그가 간 배움 길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 어른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갈 길을 뚜렷하게 만들어주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기리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인생 쳐놓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쓴 여러 편의 문학 작품(시며 시조, 산문)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린, 어른 주시경(周時經)선생이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1967년 4월 5일 <병영삼일사 재건기성회>가 세운 「삼일 충혼비비문」끝 글을 여기 옮겨 보이며 오늘 이 글을 마칠까 한다. 그는 누군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빼어난 영혼을 갈무리해 지닌 어른이었다.

「극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겨레의 자유정신을 세계에 선포하고자, 우리 고장의 청년 용사들이 죽음을 무릎 쓰고 독립운동을 하던 모습을 후세의 거울로 전하고자 이 충혼비를 세운다.

최현배는 글 짓고 조원규는 글 쓰고 새김
서기 일천구백육십칠년 사월오일
병영삼일사 재건 기성회 세움」

오늘도 이 어른 외솔 최현배 선생의 꼬장꼬장하고 결코 누구에게 굽히지 않는 힘찬 목소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마음 자리로 고스란히 남겨져 전한다. 그가 기려야 할 민족의 영혼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듯이, 우리 또한 뒷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 전하고 가르쳐야 할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다. 마침 성남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웹툰>작업 제 2차 기획에 외솔 선생이 들어가 있다. 그림과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줄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위대한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성한 이야기를 마친다. 끝

(2020년 3월 29일-114장)

□ 외솔 최현배 박사 해적이

1894.10.19.

경상남도 울산군 하상면 동리에서 최병수님의 맏아들로 태어남.

1899.2.1.~1907.3.

동내 서당에서 한문을 배움.

1907.4.1.-1910.3.20.

일신학교에서 신식 교육 받음.

1910.4.1.~1915.3.20.

경성고등보통학교(한성고등학교) 졸업.

1910.5.1.~1913.3.2.

주시경 스승의 조선어강습원에서 한글과 말본을 배움.

1915.4.12.~1919.3.25.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문과 제일부 졸업.

1919.4.1.~1919.12.31.

관공립 고등 보통학교 교원 복무를 사양하고, 향리에서 휴양.

1920.1.11.~1921.12.31.

경남 사립 동래고등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특히 <우리말본>을 기초하기 시작)

1922.4.12.~1925.3.31.

일본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 졸업(교육학 전공).

1925.4.25.~1926.3.24.

일본 교토 제국대학 대학원 수업. 이 한 해 동안 '조선민족경쟁의 도'를 지음.

1926.4.1.~1938.9.25.

연희전문학교 교수 재직('홍업구락부 사건'으로 강제 사직 당함). 이 때 1931. 3.31.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를 겸직, 조선어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말본>을 완성하여 1937.2.20. 발간.

1938.9.26.~1942.4.30.

내어쫓김 당한 기간에 <한글갈> 지어 발간.

1942.10.1.~1945.8.17.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왜정의 옥중 생활.

1945.8.19.~1945.9.20.

조선어학회 부활시키고 이사로 있으면서 조국의 국어교육 발전에 힘씀.

1945.9.21.~1948.9.21.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재임, 국어교육 터전 세움.

1946~1948, 1954~196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말본 강사.

1946.9.7.

한글 가로쓰기 연구회 창립, 회장 취임.

1948.8.8.~1950.6.24.

조선어학어에서 차린 세종중등국어교사양성소의 교수로 일함.

1949.3.24.

재단법인 한글집(한글학회) 창립 때 고향 전답 12,970 평 기부.

1949.9.25.~1970.3.23.

한글학회 이사장 피선,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

1951.1.20.~1954.1.21.

문교부 편수국장 재취임.

1954.4.1.~1960.12.

연희대학교 교수로 취임, 문과대학 학장, 부총장, 총장 서리 역임.

1954.4.6.~1970.3.23.

학술원 회원, 종신회원, 인문과학부 제2어문 분과위원장, 부회장 역임.

1955.4.23.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1956.10.9.~1970.3.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창립, 부회장, 회장으로 헌신.

1962.3.1.

건국 공로 훈장증 받음.

1964.3.1.~1966.

동아대학교 문리과대학 초빙교수.

1965.11.6.~1970.3.23.

민족문화추진회 창립, 부회장 피선.

1970.3.23.~27.

돌아가심, 사회장 염수, 경기도 양주군 신접면 장현리 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1970.4.11.

부인 이장련 여사 돌아가심.

2009.9.23.

대전 국립묘지 애국지사 4묘역에 이장 안장함.



외솔회 해적이

□ 설립 목적

나라사랑의 큰 뜻을 품으시고 평생을 나라와 겨레에 바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이를 널리 퍼냄과 아울러 이로써 우리겨레와 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회의 취지이다.

외래의 문화세력에 침식된 우리의 자주 민족정신을 바로 세워, 강건한 민족주체성을 겨레 마음에 심고, 역사 속에 파묻혀 쓰러져가는 겨레정신과 겨레문화를 발굴하여, 새로운 한국학의 부흥을 기함으로써 이 땅에 참된 한국정신을 발양코자 함이 그 목적이다.

□ 역대 이사장 · 회장

- 1대 홍이섭 (1971~1974) / 회장 겸임
- 2대 백낙준 (1974~1984) / 회장 겸임(1974), 곽종원(1974~1984)
- 3대 김두중 (1985) / 회장 곽종원(1985~1986)
- 4대 곽종원 (1987~1993) / 회장 겸임
- 1987 ~ 1992 휴식기
- 5대 김석득 (1993~2007) / 회장 겸임
- 6대 최홍식 (2008~2015) / 회장 최기호(2008~2010), 성낙수(2010~2015)
- 7대 최은미 (2015~현재 재임 중) / 회장 성낙수(2015현재 재임 중)

□ 지회 현황

- 인천외솔회
- 원주외솔회
- 충북외솔회
- 충남(대전)외솔회

- 전북외솔회
- 전남외솔회
- 부산외솔회
- 경남외솔회
- 마산외솔회
- 경북외솔회
- 제주외솔회
- 춘천외솔회
- 울산외솔회

□ 설립 연혁

- 1970년 3월 23일 강성원, 정봉, 권태웅, 정환철, 홍이섭 등 15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 1971년 8월 27일 재단법인 외솔회 발족, 이사장 홍이섭 취임
- 1971년 1월 26일 『나라사랑』창간호 ‘외솔 최현배 선생 특집호’ 간행
- 1971년 3월 23일 장충단 공원 외솔기념비 기공식
- 1972년 1월 23일 외솔회 기간지 『나라사랑』 발간(2019년 현재 128집 발행)
- 1972년 3월 23일 제1회 외솔상 시상식 거행(2019년 현재 41회 진행)
- 1974년 3월 이사장 백낙준 취임, 외솔회장 겸임
- 1975년 10월 11일 제1회 한국학 세미나 개최(총4회 진행)
- 1985년 이사장 김두중 취임, 회장 곽종원 취임
- 1987년 이사장 곽종원 취임, 외솔회장 겸임
- 1993년 이사장 김석득 취임, 외솔회장 겸임
- 2007년 10월 8일 세계화 속에서 우리 학문의 중심잡기 기념 학술 발표회
- 2008년 이사장 최홍식 취임, 외솔회장 최기호 취임
- 2008년 10월 7일 (재)외솔회 주최 “대한민국 말글 정책의 어제와 오늘” 학술 회의
- 2008년 10월 21일 제1회 토박이말 글쓰기 대회 시상식

- 2009년 10월 9~10일 문체부 주최 외솔회 주관 “한글의 정보화, 산업화” 제1회 집현전 학술대회(2019년 현재 11회 진행)
- 2010년 3월 23일 울산 외솔 생가 및 기념관 개관
- 2010년 외솔회장 성낙수 취임
- 2010년 10월 3일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외솔장학금 및 연구비 수여(2019년 현재 9회 수여)
- 2010년 10월 6일 외솔 전기 독후감 대회
- 2012년 4월 30일 <외솔 최현배 전집> 발간
- 2012년 8월 1일 베트남 흥방국제대학교 외솔장학금 수여(2015년 현재 4회 수여)
- 2015년 이사장 최은미 취임
- 2016년 12월 12일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외솔장학금 수여(추후 연구비 추가 / 2019년 현재 4회 수여)
- 2019년 3월 19일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발간
- 2020년 3월 10일 <알기 쉽게 풀이한 조선 민족 갱생의 도> 발간

비 매 품

외솔의 학문과 문학

펴낸 이 성 낙 수

펴낸 곳 외 솔 회

박은 곳 동방인쇄공사

펴낸 날 2020. 6. .

서울 종로구 종로12길6, 6층 우)03189

전화: 02-734-5048 **전송:** 02-734-5049

휴대전화: 82-(0)10-9434-2046

누리집 : www.oesolhoe.org